

지름을 잘 이어 덮으면 비를 때 세지 않나니 마음을 거두고 행을 삼가면 탐욕의 씨이 나지 않으리.
(法句經·생요품 35절)

東大新聞

발행인: 김경환, 편집인: 김경환, 발행처: 동국대학교, 창간일: 1955.10.13, 제3종등록번호: 111-110000-01,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8(2267-8577),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707(2241-4132), 인쇄인: 김영표

1.5미만 12학점미만 통산 4회면 제적기로

92년 신입생부터 적용... 연속 3회도 제적 학생운동 탄압 규정 학생들 강한 반발

학원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본교에서도 학사제적이 부활돼 학생운동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잠잠했던 학기초의 분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7일 학교당국은 교무위원회를 열고 소문으로 떠돌았던 학사제적부활을 구체화시켜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학원안정화대책에 따라 지난 9월 1일 학칙이 개정됐으나 당시엔 학사제적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학사제적이 부활됨으로써 학칙에 따라 학사판정이 엄격해질뿐 아니라 학원안정화대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학생들은 이번 학사제적부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사제적부활은 규정을 통해 "학칙제38조(성적경고-학기)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장은 성적경고처분을 한다.

1. 매학기말 학기말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
2. 매학기마다 취득학점이 12학점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학칙에 또, 제53조(제적)12호에서는 "재학기간중 성적경고를 연속3회, 통산4회 받은자에 제적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번 학칙개정안은 1992

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학칙개정에 따라 학사내규 규정도 일부 개정했는데 제76조(구분)와, 제78조(제적)2호에서 각대학장은 매학기말 20일 전까지 제적대상자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제적하게 된다. 또 교무처장은 제적이 확정되는 즉시 각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적된 자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6·3위대사건이후 학원정상화

연구위원회의 안정화대책이 나오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본교가 학사제적을 부활시킴으로써 이번일이 계기가 돼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교당국은 이번 학사제적부활조치가 타학교에 비해 학생회활동저지 등에 악용할 수 없는 경미한 조치라는데 입장을 갖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기구는 추석연휴의 공백기를 학원안정화대책의 부당성을

선전하는데 주력할 시기로 잡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4기 전야대협 출범

'야간교육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야간교육 자주의'의 기치를 내건 제4기 전국야간대학대표자협의회(이하 전야대협) 출범식이 지난 13일부터 14일 일 본교 반포 캠퍼스에서 열렸다.

전야대협 4개지부에서 3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13일 오후 8시부터 열린 출범식에서 제4기 전야대협 의장으로 선출된 이은수(단국대 야간학과 총학생회장)군은 "지난 3기동안의 전야대협활동이 부족했다"며 "총대 지부대협을 강화해 내년 새로운 조직적 전망과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불상중수 자문위 구성 학생과 공동추진이 과제

본교 불상중수위원회가 학원안정화대책에 따라 관리는 지난 13일 교정불상중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4시 30분 학처장회의실에서 민병천총장이 각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구성된 불상중수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장=서용길(불교학)관리처장 △강자우 재단사무처장 △김영태(불교학) 불교대학장 △조희영(경영학) 기획조정실장 △오영근(불교학) △최현각(선학) 정각원장 △이법산(선학) △문명대(불교미술학) 박물관장 △조승환(미술학) △조재호 건립당시의 건립위원(현 전산원장) 등 모두 11명이다.

한편 상수중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있는 총학생회는 추진위 실무위원장 고현동(불교3)군을 오늘(18일) 교무위원회실에서 제1차 교정불상중수자문회의에 참석시킬 방침이다. 이날 논의될 안건으로는 불상중수 및 불상 중수절정에 대한 사항과 중수절정에 대한

것으로 서로의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교대학생회는 이번 중수사업이 처음부터 전 동국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번 학교당국의 자문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상수를 보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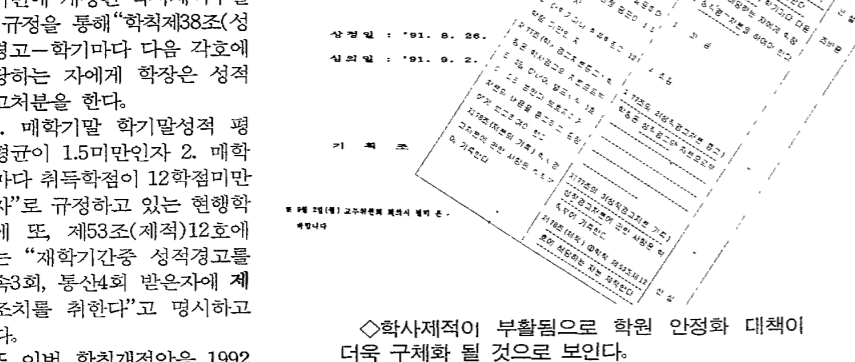
전대협 탄압 분쇄 결의 서총련 진군식 5천여명 참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진군식이 어제(17일) 오후 3시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서울지역대학생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부로 나뉘어 열린 이번 진군식의 1부에서는 학원안정화대책과 UN동시가입에 즈음한 전대협의 입장을 밝히고 남북 해외동포 청년학생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한미연합사 항의방문단에게는 전대협상정이 수여됐으며, 이어 2부에서는 서총련 중앙상임위원회의 소개와 임원들의 인사가 있었다.

진군식의 후반부에서는 상반 기행기와 하반기사업을 전망하는 자리가 있었고 끝으로 전대협의 탄압을 분쇄하고 구국투쟁의 선봉에 설것을 결의했다.



학교채 발행 4억8백여만원 목표의 27.6%... '1인 1구좌' 적극 대처 절실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발행된 2차 학교채권발매총액이 2억6천7백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사립대의 교육재정 확보의 자구책으로 마련된 학교채는 1차절차 1억4천1백20만 원을 합쳐 총액 4억3백90만 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총액은 총발행목표액인 14억8천만원의 27.6%에 불과하고 있다.

채권구입자는 교직원, 대학원생, 동문이 대부분이며 학부모들은 1·2차 합쳐 4백66명 가운데 1백60명선에 그쳤으며 매입액은 총액의 2%선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모든 동국인들의 학교채구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학기부터 '1인 1구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최창선 기획과장은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나아가 전동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계동할 3일부터 중복 제천 일원서 제23대 총학생회 연대사업부

국고 보조금 3억 도서-실습기자재구입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는 '91 사립대학 시설설비확충 국고보조금 지원 3억2천여 만원의 활용계획을 오는 20일까지 확정한다.

본교에 책정된 금년 국고보조금은 3억2천17만 원으로 예산과에서는 도서구입비에 1억1천6백62만7천 원, 실습·실습기자재 구입비로 2억3백54만4천 원을 배분한다.

도서구입비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순수도서구입비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서울캠퍼스 6천5백60만 원, 경주캠퍼스 5천1백2만7천 원이 책정된다.

실습·실습기자재구입비는 작년에 경주캠퍼스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울캠퍼스에 학과·학생수를 기준으로 이과대 6천7백19만4천 원, 공과대 1억3천6백35만 원으로 책정한다. 이는 작년 2억3백16만5천 원보다 1억1천7백66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도서목록, 실습·실습기자재 등 세부사항은 10월중순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 그때 결정되어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된다.

취업정보 전산화 전자계산소 자체 개발

'취업정보 전산화 시스템'이 빠른 오는 9월말부터 실용화 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취업계가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전자계산소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기업체의 근로조건, 보수, 시험출제경향 등 일반 취업정보를 비롯 본교 동문의 취업현황을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음

◇모집분야
 시 부 문: 3년 내외
 소설부 문: 60매 정도(2백자원고지 기준)
 평론부 문: 60매 정도(")

◇응모요령
 응모자격: 본교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1년 11월 18~11월 22일까지
 시 상: 시 부...본상15만 원, 장려상10만 원
 소설부...본상25만 원, 장려상20만 원
 평론부...본상25만 원, 장려상20만 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임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2년 1월 1일 자 東大新聞紙上
 작품제작료: 본사 총부부
 ※제출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1991년 9월 18일
동대신문사

우리는 흔히 신분상으로 비천한 사람을 천인(賤人)이라고 말하는데, 본래는 이 말이 이와 같은 뜻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한다. 즉賤자의 구성을 보면 재물 패(貝)자와 쌍일 진(眞)자의 합성어로서, 이는 재물이 쌓여 있으면서도 높고 병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르게 된 말이 뒤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단어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최상계급인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르문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천한 천인(賤人)

사람이라고 하는가. 평상시에 화를 잘 내고 원한을 잘 품으며, 간사하고 악독해서 남의 미덕을 쉽게 멀리 버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모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하며, 증인으로 불러 나갔을 때에 자신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가 천한 삶이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넉넉한 서도 늙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 그를 위해서 먹이를 먹었다가 반포(反哺)해서 이를 봉양하며, 수달(水獺)은 신뢰성(緝)이 있는 개(犬)과와 부류인데, 이는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성실하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준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들만큼은 못할망정 늙고 병든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하천한 인간들이나 할 것이 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자식들이 늙은 부모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해서 부모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덜게 하는 안심효(安心孝)를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李 萬

를 위해 먹이를 먹었다가 반포(反哺)해서 이를 봉양하며, 수달(水獺)은 신뢰성(緝)이 있는 개(犬)과와 부류인데, 이는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성실하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준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들만큼은 못할망정 늙고 병든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하천한 인간들이나 할 것이 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자식들이 늙은 부모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해서 부모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덜게 하는 안심효(安心孝)를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李 萬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

췌!

7월 12일 발표된 학원안정화 대책은 실제 학원안정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대학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학생들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사람은 교수라도 가리지 않고 탄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학을 '독점자본과 파쇼에게 안정적으로 기능인을 공급하는 장'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정권의 속셈인 것이다.

장기집권음모를 가진 파쇼정권발기에 나타나는 학생운동 탄압의 양상으로 대학에서부터 못물처럼 터지는 조국의 민주·자유화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다.

학원자주에 관한 총체적 탄압공세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대학내 민주대연협의 튼튼한 구축과 굳건한 연대투쟁 뿐이다.

학원안정화 대책, 실행 안

학원안정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 대학언론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사설

거시적인 행정 안목을 갖자

지난6일 직원노조와 처과장회의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보직임용에 행정직원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 보다 앞서 총무처개편으로 관리처가 신설되면서 관리처장 임용을 놓고 논란이 됐지만 그동안 보직임용에서 소외되어 왔던 직원들의 노골적인 불만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89년 부처장제 확대를 요구한 단체협약에서부터 91년 직제개편이후 그에 따른 직원보직임용에서 보듯 학교당국과 직원들 간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어 왔다. 대학행정은 무엇보다 업무의 전문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대학사회란 특수성에서 대학행정은 어떤 외종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사회모순이 그대로 관철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학행정이 이와같은 당위와 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직권선발에서 승진, 복직등 전반에 걸쳐 비민주성과 성차별, 또 판도주의와 안일주의의 팽배가 우리학교 행정의 침체와 사기저하를 가져왔다는게 일반적인 의견들이다. 또 임명권자의 상식을 벗어난 인사행정은

민주당에 바란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획기적 사건이 될 야당 통합이 이루어졌다.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기권표 42%가 탈락주먹이 표 찍어줄 정당에 없었던 국민들에게 지난 10일의 신민주 야당 통합의 민주당(가칭) 출범선언은 가나진 가슴에서 단비를 만난 농부의 기쁨만큼이나 반가운 일이었다. 지난 87년 개인적 욕심들로 분열되어 여소여대정국에서 뚜렷한 활등을 하지 못한채 일약 여대야소 정국으로 뒤바뀌는 패배감을 국민에게 안겨준 야당의 모습을 상기해 볼 때 이번 통합은 거머머양의 횡포를 막고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우선 이번 통합은 지역감정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내각제 개헌으로 개헌의 꿈을 키워오던 여당에게 치명타를 입혔다고 하겠다. 나아가 민주시민과 민주세력의 동용과 입주의 민주성을 전제하고 있어 지금까지 보여왔던 야권의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탈피하겠다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당의 이미지를 잘 절충의 기회라고도 보인다. 특히 이번 통합에서 주목할 점은 이번 합당이 신민주주의 당리당략 목적보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최근 주변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대단히 높다. 8월말부터 모든 언론매체에서 약속이나 한숨이 일제히 불거지며, 무역수지적자, 과소비 등 경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전철내 광고면에는 황소 흉내내는 얼마 개구리가 등장하여 과소비풍조를 풍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입 바나나는 전국의 명품과, 노점상까지 휩쓸고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부들이 파파로 느린 소비자 불가 상충들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상 수치인 10.1%보다 무려5배나 높은 49.9%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9월13일) 국제무역수지는 지난 8월말로 87억 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 때 1백50억달러 흑자를 자랑하던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불리왔는데 이제는 지렁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조종취인 코멘트도 외국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신발공장이 무더기로 문을 닫고 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던 여기에서는 현재 한 국경제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향 정도만이라도 찾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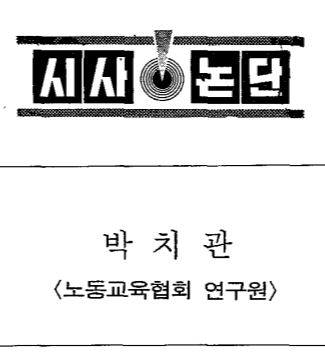
수입개방 과소비, 경제침체 무역적자 지름길

상용생산과 함께 중요한 돈벌이 수단 이 되었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 건설 공약에 따른 과도한 아파트 건축, 빌딩 빌라 골프장 건축의 붐이 일었다. 건축경기의 활황에 의해 시멘트수 출국이 대량 수입해야 하는 자경이 되었다. 개발의 부동산 광풍은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기도에 주된 원인의 심각한 대결상황으로 치달았다. 개발을 방한 부동산 탐욕은 제주도의 주민과 외국인 사이에 4:3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한다. 물가폭등의 원인으로서는 정부의 통화 팽창, 재정팽창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배권력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뿌려준다.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자금도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부동산이나 정치자금과 같은 비생산적인 데로 들어간다. 정부는 92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도로 항만 환경 및 제조업 경쟁력 등 경제 사회 각 분야 ~88년의 3저호황으로 벌어들인 돈도 기술개발과 같은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동차자산업만 보더라도 생산량이 있어서는 세계 수위를 달리지만 핵심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투기와 같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은 전면적인 수입개방과 결합하여 부유층의 과소비 풍조가 만연해 있다. 재벌은 애써 생산하기보다는 외제상품을 수입하여 손쉽게 돈 버는 데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3저호황이 사라진 지금 금융위기와 같은 국에서의 약간의 수출증가를 빼놓고는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만한 요인이 거의 없다. 외국에 의존적인 경제의 취약한 체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수지 적자의 급증과 관련하여 작년 이맘 때 산업연구원 한 연구원은 '내수경기과열로 국제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인 만큼 경기과열의 원인인 국제수지 적자를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축소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가 실제로 함께 문제를 당했다고 한다. 이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건의 태도

나락으로 치닫는 우리경제를 생각한다

의 단견인 표현이다. 언론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난국에 대해 정부 기업국민 모두 고분고분함을 외면한다고 하면서 예의 곤경철약 국민운동을 호소하는 식으로 피리를 사리고 달았다. 현재 조성된 심각한 경제적 난국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대중이다. 게다가 정부-재벌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해 나갈 확보한 의지가 없다. 이런 조건에서 재벌 중심의 반민주적 정책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대중투쟁만이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박 처 관 (노동교육협회 연구원)

TV에선 대학생들의 시위장면이 짧게 지나가고 있다. '어머, 아빠...' 그런 말들을 '여우 배를 때부터 딸이'는 내용과 아들의 품에 번갈아 안기며 집회장을 드나들었다. 그리고 맨 먼저 배운 말이 '노동자'다. '노동자가 뭐야?' '아빠도 노동자야?' 그런 말들을 듣고 대답해주며 나는 내가 지나온 몇년들을 돌이켜 보곤 했다. 유년 말기에 입학해 격동의 80년대 초반을 대학생으로 살면서 나는 그 혼란

늘게 시작한 만큼 단 한 걸음도 이 길을 비껴가지 않았다. 이는 실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은 그토록 벗어났고 싶었던 문학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문화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대학시절 내가 했던 것 같았던 문학회도 슬모가 있다는걸 느끼게 된 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 문예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후배들을 만나게 됐다. 주로 대학에서 문예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졸업을 한

동/문/갈/림 정 광 호 (부천노동자문화회. 국문과 85출)

우린동은 이론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5월투쟁, 통일투쟁... 그 슬픈 투쟁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이 식민지 상황에서 절망 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 슬픈 죽음과 절망속에서도 결코 거치지 않는 투쟁의 불꽃을 보라고. 소련사태를 보며 역사의 발전에 회의하는 사람보다 가슴스런 미지의 야욕에 먼저 분노하는 사람이 이끌어온 것이 우리의 운동이다. 허황한 이론보다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망적인 어둠속에서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다. 항상 제 자리를 지키고 역사의 발전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며 동지들의 곁에서 한 걸음도 비껴쳐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 후배들이 많은 건 내게 큰 행복이다.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한 후배가 가끔씩 집에 찾아오면 늘 딸이와 장난을 친다. '노동자가 뭐하는거야?' 딸이이는 손을 댄다. '하늘로 치켜올린다. 구름의 끝은 평평한 아이의 머리 끝을 번갈아 쳐다보며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 사람은 세상!

東國漫評 이젠 그만 공부나 하게다. 학사취적 부활!! 개성천천

- 목적골 김석현(경흥88) 학우의 세계복싱선수권 대회 출전을 기대합니다. 모든 복싱 선수들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빛나는 길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치약신할집이 성순이가
- 꽃패지 서정영(화학91)이 셋바람에 들어왔네요. 우리모두 여성보장, 노동행방 그 날까지 투쟁할 수 있는 정영 학우를 축하합니다. -한 친구가
- 교육방송국 33기 영남라리가 9월20일에 머리카락세우고 태어났네요. 축하해 주세요. -날리리를 사랑하는 33기 친구들
- 구룡도가 회원 여러분 아우회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저희(3명)는 회장님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자주 좀 나오십시오. 안나오면 정말 자르겠습니다. -구룡도가 정의파 일동
- 현어를 정기연주회가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청중과 절친 ensemble로 무척이나 뿌듯하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현악을 부탁한다. -11기 J.
- 몹시 힘들어 하는 열이에게 취재 해느라, 기사 쓰느라, 사진 찍느라 매우 바쁘면서도 여유있는 태도가, 힘 내그라. 얼골 찌푸리지 말고 항상 바보인듯한 그 웃음 간직하고 행들, 우리들, 후배들에게 힘을 주는 친구가 되길 바란다. -희생회관 지하에서

동막! 광장

- 은방골 제2기 자주여성·민주여성 대동학교 제7대 하나되는 여학생회가 지난해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옥야실에서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대동학교를 개최한다. 1만학우 다 모이길바라던 너무 큰 욕심일까요? -여과 회장
- 선·후배 모두 모입니다 동지들문회 동문회비 납부및 티켓비때문에 19일 오후 5시 A305에서. ○울산 학생회, 울산여고 동문회 19일 오후5시 A209에서 졸업생 환송회를 안건으로. ○해동고 동문회 19일 오후6시 회비 만원이상되고 학생회관 휴게실로. ○덕원 동문회 19일 오후5시 도서관 휴게실로 회비만원 되고. ○울산남고 졸업생 환송회 오는 29일 오전10시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열립니다. 졸업하시는 선배님의 많은 참석바라고요 아직 파트너 못구한 동문에게 명복을 빌니다. -음하

- 알립니다 87년 민주쟁취 투쟁타도의 합성으로 메아리친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명의 같은 6공화국은 '보통사람 보통시대'의 마감을 드러내 공명력을 병자한 폭력과 체제 수호를 병자한 살인적 법 집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동대의 학원단체, 서울사회과학연구소 단담, 박노해 동지의 투기선교등이 그것이며 지금도 남한 구석구석에서 그들의 폭력과 인권 유린, 자유박탈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동국대 경제재벌의 투쟁의 학우가 독립자본과 파쇼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강순호(호경·87)와 최현철(미술·89)이 그렇습니다. 강순호학우는 89년 초부터 시작된 풍만 통치의 광풍을 분쇄하기 위해 4.13전경당사 타격을 감행했으며 최현철 학우는 90년 신진동파출소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그후 두 학우는 수배를 받게되고 긴 수배생활속에서도 항상 동료와 선·후배에게 웃음으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8월9일 최현철 학우가, 9월3일 강순호 학우가 각각 신진동파 금강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사람은 우리곁을 떠나 내남의 0.75명 감방에서 가를, 겨울 그리고 기억없는 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에 인권복지위, 인문대, 하늘땅의 사람들 조정과에서 두 학우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두 학우는 여러 하루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는 편지와 잊지않고 기억하며 써주시는 것이 두 학우를 다시 우리곁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일일찾침은 지난 9월17일 오전 10시부터 밤10시까지 신진동 '고리방'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부사회 마치고 되었습니다. 이 수익금 모두 두 학우의 따뜻한 온정에 쓰일 것입니다. -제6대 인권복지위원회 허은 석 (자연대 조경학과)

기획시리즈 두번째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화해의 흐름 역행하는 전쟁위협 전략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한 UN동시가입과 소련의 몰락에 따른 전세계적 냉전체제의 분위기가 유독 한반도에서만은 군사적 긴장고조라는 냉전적 분위기를 고수한채 맴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통탄나면 '북한의 핵개발이 위협수위에 오르면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지할것'이라고 선전포고식의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결프전 이후 '새로운 국제적 분쟁유리지역'으로 손꼽히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한반도.

이들에서는 지난호의 미국주도의 '신세계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미국의 한반도전략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공세적인 미국의 한반도 전략

결프전을 전후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더욱 강경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소련의 지위가 하락함에 따라 정치·군사적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그에 걸맞은 힘의 논리를 구사해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자신감은 정치·군사적인 면뿐만이 아닌 경제·외교 등의 면에서의 이익까지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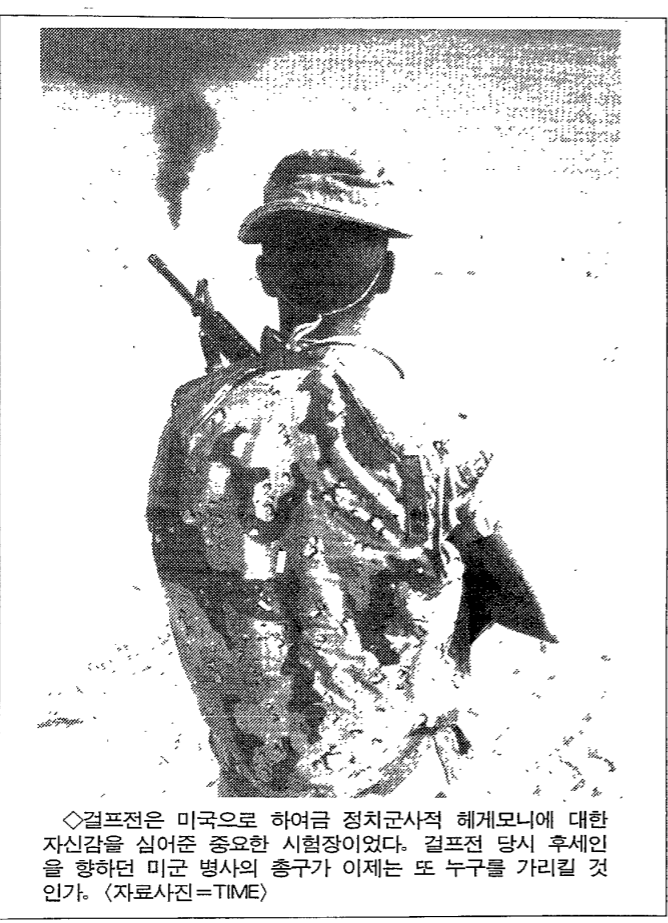
결프전 종전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의 관철방식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거부 및 주한미군 철군 재조정, 그리고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급속한 추진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미국내의 금융불황과 실물경제의 침체등을 이유로 우르프이라운드등의 개방압력을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꺼지려 함으로써 보인다.

비핵지대화 거부 의미

지난3월 솔로몬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의 비핵지대화 거부선언으로 가시화된 한반도의 핵문제는 비단 그것이 한반도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일뿐만 아니라 조-미관계, 미-소의 한반도 정책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된다.

물론 한반도비핵지대화거부라는 미국의 주장자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결프전은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군사적 핵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중요한 시험장이었다. 결프전 당시 후세인을 향하던 미군 병사의 총구가 이제는 또 두구를 가리킬 것인가. (자료사진=TIME)

주장해왔던 북한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소극적이었던 남한정부의 입장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이다. 특히 이와같은 발표가 결프전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이후 제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미국은 결프전 이후 소련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현재는 비핵지대화거부뿐 아니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또한 시사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재조정과 한국군 현대화

로버트 리스카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3월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결프전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며 북한이 결프전의 결과를 결코 간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군사력이 이라크와 비교해 지상군병력, 전투체제가 비슷하다"며 북한이 전력증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잠재적 북한위협론은 이전에도 계속 남한의 주한미군주둔 및 군사력증강의 이유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지만, 현재의 기본적인 남북한 긴장완화 움직임을 강력히 통제, 자신들의 주권에 위협을 가하는 계산에서 비롯되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정착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 비핵지대화 거부와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추진은 군사력증강에 의한 대북우위확보가 군비증강의 첫번째라는 냉전적 사고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탈냉전 이후에도 그러한 사고방식이 변함없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초로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92년 이후에 축소되거나 폐지될것으로 예상됐던 임시평화협정이 실현상황(=결프전)에서 매우 유용했다며 축소내지 폐지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추진

한 핵개발이 위협선을 넘어선다면 경제적 제재나 핵시설에 대한 폭격 또는 핵공작전등의 물리적 행사도 생각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결프전이 종전된 직후 유력한 분쟁지역으로 미국이 손꼽던 지역인 한반도에 대한 직접개입이라는 첫 포선인 셈이다.

즉, 미국의 태평양지역의 전략변화가 '소련의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당분간 유지될것으로 보이는 소련의 거대한 군사력을 염두에 두면서도 미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상황에 군사력을 집중시킨다'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했을 때 그 첫번째 대상이 한반도라는 것이다.

냉전의 해체후 소련위협론을 대신해 북한위협론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90년도 국방예산이 북한군인총생산의 절반에 이르렀고(통일원 추계)북한 국방예산의 2배에 가까운데도 아직 군사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며 2천년 대 초반까지 계속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더구나 남북한 군사력 투자가 격전된 것이 15년이 지났고, 남한의 국민총생산이 북한의 10배에 달하는 데도 여전히 군사력 균형은 2천년대 초반에 가사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산술적으로도 있을수 없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력비교나 군사력 비교가운데 어느 한쪽의 문제가 지배세력의 편에 따라 조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위협론의 근거가 희박한 상태에서 미국은 핵위협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리적 행사' '북공작전'을 운운하며 한반도의

글쓰는 차례

1. 국제정세개괄
2. 변화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3.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대응
4. 북한의 현실노선
5. 남한의 흡수통일노력과 미국
6.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7.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그 전제조건
8. 총괄

북한은 이에맞서 세계적인 탈냉전구조를 한반도에서도 적용하려

군축과 불가침선언을 중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등의 핵사찰관련 위협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다'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군축협상의 양면성과 평화운동

북한은 이에맞서 세계적인 탈냉전구조를 한반도에서도 적용하려 군축과 불가침선언을 중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등의 핵사찰관련 위협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다'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이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전쟁을 상정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축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은 평화를 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내용은 남북한 공동 핵사찰을 통한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군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계속되는 전쟁긴장고조위협에 맞선 평화운동은 우선 한반도에 있어서 핵의 불필요성을 현실적 근거로써 실득하고, 군사·정치적 측면에서의 자주적인 대화로 의제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때보다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져 있다. 그것은 미국의 '신세계질서'라는 군사적 우위의 전략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냉전적 사고에 갇힌 강대국의 논리를 부정하고 철저한 민족자주적 입장에 서는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정세, 고조되어 가는 긴장 속에 전지해야 할 원칙일 것이다.

김 산(본교 동문)

학술정보 SRI컴퓨터 방송국 개국

정보 교환 통해 서로 친근해 지기도 각종 자료 24시간 무료 중계

본교 수학과를 졸업한 동문인 송광우(77학번, 신홍전문대 전산과 학과장)교수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연구소인 서울리서치에서는 24시간 무료 SRI컴퓨터방송국을 개국했다.

이런 SRI컴퓨터방송국 개국은 송광우가 그간 서울리서치에서 정부나 일간지의 의뢰로 조사해온 선거여론조사, 마케팅조사, 광고조사 등 1천여건이나 되는 자료들을 논문작성이나 보도자료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학과 교수들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룩한 성과이다.

방송국의 자료이용방법은 SRI컴퓨터방송국의 PC와 개인등록해당자의 PC에 각각 모뎀(MODEM)을 설치하고 등록인이 네트워크 라인넘버 '392-9676'으로 발신한뒤 4자리수의 암호숫자와 암호명을 기입하면 서울리서치내에 설치된 SRI방송국의 FC와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다.

특히 동국동호회를 비롯해서 각대학과 단체의 동호회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선·후배간의 소식전달과 동호회안내, 구인·구직등 컴퓨터를 통해 서로 더욱 친근해 지고 있다.

한편 본교 학생 5~6명도 포함된 동국동호회를 비롯해 현재 370개의 가입자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SRI의 반응이 좋아지자 SRI가입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여러 유료 컴퓨터통신사에서 중계되고 있고 한국 데이터통신의 PC서브, 한국경제신문의 케텔(KETEL)등에 동호회코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광우는 앞으로 가입자가 좀더 많아지면 SRI를 통해 설문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사회부)

남북한 공동핵사찰로 핵위협 상호제거해야 '물리적 행사' '특공작전'운운하며 민족자주권 유린 미국, 한반도에서도 여전히 힘의 논리 구사

미국은 그동안 남한의 핵배제문제와 관련해 NCND(공정도 부정도 없는)정책을 고수하며 사실상 비핵지대화에 대한 묵시적인 거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그대로 관철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실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솔로몬의 이번 공식방문을 적어도 두가지점에서 이전의 미국의 전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는 남북대화 및 '핵안정협정서명'에서 공세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군축·불가침선언체제를

둘째로, 그동안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소련에 대해서 예기를 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90년11월 남한을 방문했던 메드베제프 소련 대통령위원의 자문위원은 "한반도문제의 전면적인 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협력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한반도 남북의 미군과 핵무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한반도문제의 전면적해결은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완전철수에 있음을 분명히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주장에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보조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부담을 한국군의 현대화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군현대화 계획은 미국의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미국의 첨단군수물자를 판매해 결국 방위비를 남한에 전가시키려는 계획에 다름아닌 것이다.

미국의 전쟁위협 의미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실무회담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무조건 저지해야 하며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정치·외교적 방법을 동원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전략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결프전 이후 북한이라는 새로운 위협론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질서를 한반도에서도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즉, 단계적 철수를 검토하던 주한미군은 2천년대이후까지 장기주둔시키고, 한국군 현대화계획, 전시집중군현정등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방위비분담이라는 명목아래 남한정부에 떠넘기며, 중국에는 냉전체제의 고수와 남북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북한의 항복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제29회 학술상 작품 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알찬 수확을 거두는 본 社 學 術 賞이 올해로 제2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높은 참여로 동국의 學 風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 人文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 社會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 自然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응모요령

원고매수: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 학생 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 社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논문제출: 1991년 10월 11일~15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입상작발표: 1991년 10월 23일 本 紙 紙上

동대신문사

'학교채'를 매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000만원 김만전 김창희 이명자
- 2,000만원 김문영
- 1,000만원 김진문 심상수
- 500만원 강동환 유동철 이원근 정윤근 최선규
- 300만원 박병규 류자열 유지홍 이상래 이종태 전임호 최한덕
- 200만원 박정자 김발현 김재국 이시우 이종용 이종화 이치운 조성호 조용영 박수성 서상노
- 100만원이상 김용정 김이영 김경자 김필수 박영식 박영환 박홍규 성용모 신상호 신홍우 이연태 이재창 이진균 이희도 정필현 조정기 최철봉 홍희표 김인택 김정란 박기흠 박용석 배성환 서무규 이종철 이영배 이원재 이장연 임문환 임현숙 정성광 최의한 최장식 함덕상
- 50만원 강병철 권관환 김귀영 김기수 김대진 김성근 김영주 김재국 김주환 김진국 김진수 김태보 노순관 박선영 박관규 서상문 손해복 유지진 이강희 이길용 이길원 이수열 이정호 이해홍 임영민 장한기 전유선 정승길 조문철 홍영범 홍치유 권은주 김병기 서영석 이재영 이소희 이혜규 장승식 최상범 황옥자

- 30만원 김재욱 김종정 안효봉 유영상 김길용
- 20만원 강창순 김경자 김기근 김진태 박종환 선상규 손준규 차진규 현병근
- 10만원이상 김만수 김병철 김상식 김영원 김원정 김준근 김준호 김관정 김태규 김형기 김희영 나종연 문준호 박위연 박준복 박화진 박완오 백일국 상은식 석상훈 송석규 송학근 심재광 이규설 이대희 이매철 이종복 이원규 임두재 장위상 조원철 진수만 최창호 홍진영 홍희자 권대홍 김지현 이강우 이철우 임상복
- 5만원 강경태 강재학 김순옥 김영부 김영수 남민이 류덕상 박근서 박호장 석광일 송태광 안광복 안대용 유인수 이봉순 이시연 정재혁 정경훈 정덕화 조갑태 한은옥 (2차분 1991년 9월 9일 현재)

채권 발매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서	울	경	주	합	계
1차분('91. 5. 29)	130,100	11,100			141,200	
2차분('91. 9. 9)	241,500	3,750			245,250	
소 계	371,600	14,850			386,450	
할부구입 및 미발행 분						19,550
총 계						406,000

※학교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교 기획조정실 기획과(전화:265-9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취업정보 전산화 도입 시급

'취업 그 실태와 대책은...'

1) 취업률의 실태와 문제점

- ...해마다 취업시즌이 되면 대학졸업예정자들은 어머...○
- ...어머란 경쟁률을 뚫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
- ...을 겪는다. 이같은 대졸자 취업의 현황과 문제점, 아...○
- ...올러 애국적사외 진출 등에 관해 실는다. <편집자>...○

본격적인 취업시즌이 접어들면서 올해역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 기'식의 심각한 취업난이 예상된다.

이미 서정기에는 취업예비생을 위한 다양한 취업대책이 선을 보이고 있고 각 대학 교학과나 취업과 취업장구는 입사원서를 준비하는 졸업예정자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과 아울러 취업준비 사이에서 방황하는 취업예비생의 고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내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의 비신속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취업준비를 하거나 취업상담조차 못하고 입사하는 대학 취업대책의 현실이다.

올해 신규채용인원은, 전국 50대 기업그룹의 계열기업체까지 포함해 총 2만4천여명으로 20대의 높은 취업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8년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국면과 수출부진, 인건비상승 및 사무자동화에 의한 사무직인 감소현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직군살때기'방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마다 대학졸업생의 증가, 신규채용인원의 감소는 '고학력 실업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앞으로는 채용인원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기업·중소기업 신규채용의 특징을 보면 대기업은 채용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턴사원제를 활발히 도입하는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대개

업에 비해 채용인원을 다소 증가시키려는 추세이다. 이러한 취업난 속에서 본교 89년, 90년 취업률을 살펴보면, 군입대, 대학원, 고시준비를 제외한 순수취업률이 각각 56%, 54%로 나타나 계속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교의 순수취업률은 90년 전국 대학 평균 순수취업률 55%를 밑도는 수준으로 학교·학생 모두 '취업전쟁'에 대비한 체계적인 취업대책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인 반면 불교대, 사범대, 이과대 등은 50%를 밑도는 취업률로 대학별, 학과별 취업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입사원서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기학과로 원서가 편중될 경우 취약 단과의 취업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취약 단과의 경우 우 지기전공을 살린 취업진로는 생 각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여대생의 취업은, 88년 남녀고용

실제로 사원모집 의뢰가 쏟아지는 취업과에는 각 기업체 인사담당자로부터 "남자만 받는다"든지 "여성지원자는 피해달라"는 당부전화가 걸려 오는데 공채공고에도 '병역필자'등의 문구로 남녀차별고용을 시사하는 기업체가 부지기수이다.

이렇듯 더욱 치열해지는 취업전쟁과 폭주하는 취업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학생과 취업정보부

취업과 신설은 학생과 취업정보부의 업무처리와 달리 취업상담, 신속한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정보기 구로 개편된 것을 의미하는데, 본교의 경우 취업대책은 과거 취업과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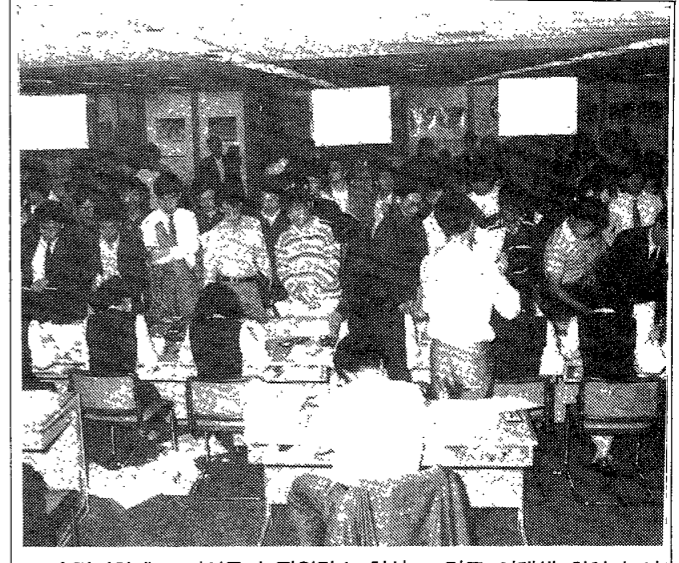
본격 취업시즌인 2학기부터 각종 자격시험, 취업특강, 공채공고 업무

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장소이전이나 공간확장을 고심중에 있다.

하반기 기업공채에 대비한 취업과 특강계획을 보면, 10월 초 면접특강을 시작으로 각 기업 인사담당 동문들의 취업안내에 관한 간담회가 준비중이고, 올해 처음 취업특 강을 실시하기로 했던 졸업준비위원회는 취업과와 공동으로 각종 특 강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실시한 졸업취 취회 '리쿠르르스' 적성검토검사에 130여명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들의 자발적인 준비태도도 요구된다.

취업담당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졸업예정자가 근로조건, 보수, 시험 대비 공부에만 매몰돼 새로운 취업 정보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에서 주력하는 각종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직원감소 현상, 그리고 여대생 취업의 어려움등 대졸자 취업난은 해가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와 1차 실무접촉을 갖는데 전산화 프로그램은 95%까지 완료된 상태로, 따르면 10월 초 실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정보 전산화 시스템의 경우 승설대, 한양대, 국민대 등의 대학에서 2~3년전부터 실용화되고 있는데 쏟아지는 취업정보와 신속한 정보제공 면에서 취업을 고민하는 졸업예정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 전망된다.

전자계산소 개발주인 김강수씨는 "취업정보 전산화가 실용화된다면 새로운 취업정보는 물론 동문들의 취업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손쉽게 정보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취업과 업무처리 형태는 수작업을 통한 공채공고, 입사원서 배분 및 접수로, 취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이나 세심한 취업상담은 업무량에 밀려 뒷전인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정보 전산화가 실용화된다면 취업과는 보다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동시에 과중한 업무량에서 벗어나 취업특강·상담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본교 취업대책의 또다른 문제점은, 취업대비가 학내 취업정보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태

도인데, 지난 9월 적성검사 참여율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특강이나 각 기업 자사설명회를 마련하는 졸업예정자의 태도는 "취업과 특강계획에 적잖은 실망감을 준다"는게 이창학씨의 말이다.

본교 취업대책의 문제는 스단대별 취업편차 심각 스대대생 취업난 스각종 특강 부재 스취업정보의 비신속성 등을 들 수 있다.

취업이 대학 4년을 마무리하는 졸업생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했을때 이과대 등 취약단대에 과감한 시설·교육환경 투자, 만능적 취업난에 허덕이는 불교대의 취업진로지도,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 등 현재 취업대책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취업과의 인력배치를 늘이고 1년동안의 체계적인 취업대책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취업특강 등 취업대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 상시적인 취업대책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취업전쟁의 승리'를 위한 학생들의 태도도 일인한 취업준비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취업준비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병민 기자)

취업과 신설후 체계적 취업대책 기대 변화하는 채용기준 능동적 대처 필요

을 요구한다. 특히 단과대학 취업률 편차가 큰 것과 여대생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소위 '인기학과'의 채용편중이라는 사회적문제도 있지만 취약 단과의 취업대책도 여대생 진로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90학년도 졸업생 대상 취업률(91년 2월28일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순수취업률은 54.4%(남자 59.2% 여자 41.8%)로 89년 56.3%(남자 60% 여자 46.6%)와 대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별 취업률을 보면 경상대, 법대, 공과대 등 공과기업체나 금융기관 취업에 유리한 단과대가 80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89년(46.6%)에 비해 4.6%감소한 43%의 낮은 취업률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의 업무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여성을 뽑지 않으려는 사회적 통념과 직장을 '결혼전 스카기는 코스'로 치부해 버리는 여성 직업관이나 일인한 취업대책 준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취업과 취업담당 이창학씨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앞으로 여대생 취업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며 "미리 여성 선호 직종을 찾아 보거나 영어회화, 컴퓨터, 타자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만을 불만 학기중 취업대책이나 방학중 취업정보를 1년의 체계적인 취업대책은 전무한 상태이고 이는 전국대학 취업과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취업과 신설후 취업과 인력 구조가 과거 취업과와 동일하고 취업담당 담당자가 1명으로 각 기업체 사원모집 공고등 폭 주하는 업무량 처리에도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또한 상시적인 취업과 인력 구조가 과거 취업과와 동일하고 취업담당 담당자가 1명으로 각 기업체 사원모집 공고등 폭 주하는 업무량 처리에도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취업과 신설이후 지난 2일 '취업자료실'이 개설된 했지만 취업정보자료 미흡,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특강이나 상담을 통한 진로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스노사분구 근절 스업무내 용에 맞맞는 신입사원 채용 스업무 능력 향상 차원에서 사업주들이 심리·적성검사 및 면접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기업주의 구인심리 정보의 신속한 전달은 어느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취업정보와 다양한 취업 정보 신속한 제공이 취업과 취업대책의 주내용이라 했을때 '취업정보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은 현재 본교가 안고 있는 취업대책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간주된다.

취업과는 취업정보 전산화 도입을 앞두고 오는(18일) 전자계산소

서울·경주 온라인 망으로 행정처리 신속

직원들의 이해와 예산부족이 아쉬워

동이 자유로와져 서울 및 경주 캠퍼스 학생들은 양캠퍼스 어디서나 행정업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경주 캠퍼스의 학적 온라인 처리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기존에 입력된 인적·학적변동 사항 및 매학기 성적우수 사항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또한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는데 있어서의 필수 장비 구입등의 절차를 거쳤다. 현재 경주캠퍼스 학적과는 온라인망 연결이 피기전까지는 서울캠퍼스와의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상당한 불편이 있어왔다. 모든 행정업무가 일괄처리와 됴으로써 자연히 비효율적인 업무에 이르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제증명 서류발급시 타지기를 이용한다는지 하나하나 복사해 해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경주캠퍼스와의 온라인 연결은 이와같은 불편함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등 발전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 전자계산소에서는 기존의 Batch System에서 On-Line System과 하면서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할수 있게 되었다. 일찍하면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자료의 처리와 입력은 각 담당부서내에서 동시에 할수 있음으로써 본격적인 행정의 전산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지만 각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온라인 전산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과 스스로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을 꺼려해 아직까지는 본교내에서 온라인망을 통해 행정업무의 자료 및 서류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

다. 경주캠퍼스 학적과의 경우도 지금은 임시방편적인 단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온라인망을 이용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본교 행정업무의 전산처리단계는 전자계산소에서 각 학교업무 관계부처와 같이놓은 터미널을 통해 수시로 정보나 관련서류 등을 이동시킬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 이후 장기 발전적인 행정 업무의 전산망 구축이 점차적으로 실현될때 현 대학행정의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일에 대한 능률의 향상 및 사무 자동화의 실현이 가능해져 기대가 모아진다.

(조인환 기자)

기획재

본교는 행정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컴퓨터가 서울시대 대학에 비해 비교적 빨리 도입되었으나 업무의 처리형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행정업무 처리의 형태가 Batch System(일괄처리 방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계산소는 학교행정 업무의 발전적인 전산망 구축계획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이 서울·경주간의 온라인 전산망 연결사업이었다. 하지만 온라인망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필요인 컴퓨터의 중설교체가 늦어지는 데다 사용원칙 엄박되기도 많은 기기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되어 기술축적이 지연되는 오류를 가져왔다.

서울과 경주간 연결된 이번 온라인망을 통해 이제부터는 거리상의 문제로 제약받은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시킬수 있게 됐다. 즉 제 증명 서류발급을 비롯한 문서의 이

꿈을 떠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三星

슈바빙의 낭만, 라인강의 예술과 기적, 부란텐부르크, 통일독일의 위용 — 그러나 가슴에 가장 크게 새겨진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재원(삼성물산 해외전략팀 근무) '88년 1월 삼성물산에 입사, 지난 9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산전 지역 전담가게로 독립에서 생활한 현지인어, 생활습관, 문화와 제도 등을 자유롭게 익히고 돌아왔다. 독립이 통일된 땅이 들었던 베틀된 장래에서 자신이 직접 겪어 본 좌절을 갖고 돌아와 팀원이 깨닫고 그때의 경험과 다짐을 다시 새기고 한다.

꿈을 떠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三星

◇'학원안정화 대책'을 해부한다

학생회가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외부에 의한 폭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원안정화대책(이하 학안대)에 대한 논의를 두고 학원주체간의 내부분열이 위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른바 학안대의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타대의 사례를 통해 본 그 본질은 무엇인가.

지난 4월16일 성균관대에서 있었던 교수·학생간의 주차시비 사건으로 교원수호등을 들먹이며 전국 총·학장회의에서 마련된 '학원안정화대책'은 그동안 시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회의의 대안없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6·3 외대 정총리 사건을 빌미로 가해진 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과 끝이 6월5일에 열린 총·학장회의에서는 이 학원안정화 대책을 구체화 하려는 등 더욱 구체화 되었다.

학안대의 구체적 내용은 ▲ 학생회비 운영권의 자율화 방지와 학생회간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학생회활동 통제 ▲ 외부단체의 학내시설 불법사용 금지, 불은 유인물과 대외발행물, 대학원생의 편집권 회수 등 면학환경 개선 ▲ 학사경고·제적 부활 등 엄정한 학사관리 ▲ 교수인명, 예산편성에서 학생참여를 배제하는 교원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 4월엔 한국대학교총협의회(회장=박영식 연세대총장)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발전하여 각 대학별로 가시화 되고있는 학원탄압의 실태를 알아본다 먼저 동부

정권의 안정화 '음모'에 불과

대부분 대학 학사경고·제적 부활 교육부 매개로 한 간접적인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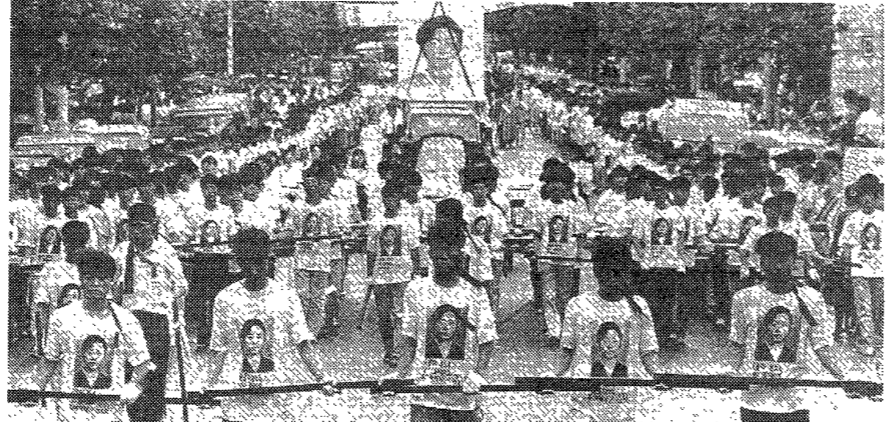
지구에서는 외대를 비롯해서 경희대, 건국대등이 학사제적 이 부활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외대의 경우는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후보등록을 허가하고, 단대별 '장학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평점2.0이하인 자에는 장학금 지급을 금지하는가 하면, 학보의 편집권을 학교가 회수하는 내용의 학칙을 추가 포함함으로써 정총리사건이후 학원침탈이 가장 두드러진 경우이다.

한편 정영준(외대 경제대학 학장)은 6월이 지난 12일부터 6·3정총리사건으로 제적된 학생25명의 재적절차를 요구하며 단속농성에 들어가 현재 11명이 동참해 농성중에 있으며 학생회도 지난5일 학원탄압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과, 단대의 분위기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관기 운영 등 학생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화여대와 서강대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철수 또는 학교와의 공동관리를 요구받고 있고 상명여대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자관기계약권을 학교측이 압수했다. 더욱이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달24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학교측이 교육부에서 갑자기 나온다는 이유로 학내 게시판의 대외부 플레카드를 무단 철거하기도 했다.

남부지역의 경우 중대와 단대가 모두 학사경고·제적제를 부활시켜 각각 학적1.8미만 연속2회, 통상3회 취득자와 학적



◇'학원안정화 대책'은 학원의 자율성 말살과 더불어 올바른 학생 운동을 탄압하려는 정권의 술수이다.

10미만 연속3회, 통상4회 취득자를 제적시킨다는 학칙개정안을 준비해 중대는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단대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 한편 본교대 지난 17일 교부위원회를 통해 학기말의 17학점 미만(1.5이하) 연속3회 통상4회 취득자를 제적시킨다는 새학칙을 통과시켰다.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숭실대와 고대등이 학사경고·제적제를 부활시켰다. 숭실대는 지난 달 27일 교부위원회에서 학적 1.5미만 연속2회 통상3회 취득자를 제적시킨다는 새학칙을 교육부에 상정했고 고대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

한편 자관기 수익금 회수문제를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간에 맞고소사태까지 빚었던 국제대는 지난89년도부터 학사경고·제적제 부활, 자관기 등 학생수익사업의 불인정, 대학원생 편집자위원회의 학교회수등의 학원탄압이 꾸준히 진행되

고 있는 실정이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6·3정총리 사건이후 서울시내 대학은 물론 전국 대학으로 급되는 학원안정화 대책은 학사제적 도입, 학생회의 수익사업 금지, 대학원생탄압등 이상 세부사항으로 가장 자율적이어야 할 대학사와 본연의 모습을 부정할 음모이며 폐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달부터 학원안정화를 위한 교육부의 지침을 중심으로 전국총·학장 회의로만 주도되어온 '학원안정화대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마디로 독재정권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었던 학원 자주화추진 운동에 대한 독재정권의 은폐된 학원탄압이다. 지난 5.6월 반 독재정권투쟁 시기에 수세에 몰렸던 현정권이 92.93년경까지의 안정적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대학의 3주체(학생, 교수, 직

원)이 합의를 이룩했던 학내민주화가 막대한 위협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노정권은 예전의 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에서 사립대학 재정지원에 관여된 교육부와 학장회의등의 일련의 모임을 통한 간접적인 학원탄압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다시한번 학내민주세력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껏 대학의 3주체가 이룩해 온 학원자치행정이 정권의 학원지배 의도에 의해 무너질 혼란의 시기에 직면한 것이다.

먼저 학생들은 과와 단대로부터의 과토의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학원안정화대책의 본질을 바로보고 내놓는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원3주체의 대안있는 연대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92.93년경까지의 안정적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대학의 3주체(학생, 교수, 직

(송태영 기자)

◇정권 재창출의 도구화되는 방송 권력재편기 앞둔 정책의 일환

6공정권이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방송을 이용하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미 6공정권 정권재창출의 사전정치작업으로서 국회에서 방송관계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방송구조개편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KBS의 분할지배-교육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환, 송출공사와 독립프로덕션 설립으로 조직 분해를 통한 용이해진 통제-MBC의 통제강화, 완전 상업방송인 서울방송 신설 등은 정권의 방송정책 의도가 관철된 결과물의 모습이다. 방송구조개편의 본질은 현 공영방송의 편제방송화, 상업방송의 탈정치화를 통한 언론통제체제의 복원인 것이다. 여기에서 언론통제체제의 복원이란 사회민주와 운동의 확산과 방송노조의 방송민주화운동으로 다소 약화된 방송통제의 힘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방송이 정권재창출의 효율적 도구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KBS는 자회사 '아트비전'-TV방송의 무대 미술, 세트, 소품, 의상, 조명 등을 담당하는 전문회사-의 설립과 '송출공사'-방송

서 폐지될 것으로 보였던 이 기구는 1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받아-공익자금 5백억원, KBS, MBC 각 2백억원, SES 1백억원-방송기술 정책연구, 방송법제-구조개선 연구, 2천년대의 방송질서 연구등 방송의 신질서를 창출해 내는 사업목표를 지닌 주요 방송기구로 편성하게된 것이다. 이 기구의 인사권은 공보처가 장악하고 있어 관변방송단체의 위상이 강화될 것은 물론이다. 또한 방송인연수사업계획은 정권주도로 진행되는 언론인정신 재부활의 일환이 될 것이므로 방송인의 개방화를 이끄는 효과를 낳게 된다.

방송관련기구 중 역시 폐지가 거론되었던 한국방송광고공사도 그대로 존속되어 언론이 순차적입과 관료적 전이행정의 주요재원인 공익자금제도가 여전히 남용되고 있다.

이처럼 방송사와 방송관련기구에 대한 정권주도적 지령이 나타나고 있다. KBS는 자회사 '아트비전'-TV방송의 무대 미술, 세트, 소품, 의상, 조명 등을 담당하는 전문회사-의 설립과 '송출공사'-방송

유선방송의 정부장악...저질성 우려돼 정권주도의 방송인 연수...방송인 개량화

전과 송출을 담당하는 시설과 업무전담회사-의 설립을 강행하여 관련 노조원 1천4백여명을 해임하면서 KBS노조를 붕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분할정치전략에 입각한 노조와의 의도를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의 주요 방송형태인 종합유선방송(CATV)의 경우 운영과 프로그램개발을 정부(공보처)가 장악함으로써 출발부터 정권의 통제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유선방송의 프로그램분리는 독점체제에 넘어갈 것이고 프로그램 내용은 탈정치화된 저질오락의 성격이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방송관련기구 역시 방송장악을 위한 정권의 '전위기구'로 개편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개발원'이다. 매스컴진흥(91년8월31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공보처가 '방송개발원'을 통해 '방송개발원'을 종합적인 방송통제기구로 내세우는 기도가 본격화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원래 방송프로그램 개발, 방송인 연수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개발원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 '하는 일 없이 국민의 공익자금만 축내는 기관'으로 비판받아 왔다. 따라

대물리기 대체된 것이다. 방송이 정권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편파·왜곡 방송으로 정치선거에 유리하게 이용될 경향은 부수하고 있다. 지난 기초·광역의원선거와 보궐선거는 방송은 선거주체인 유권자와 후보를 소외시키고 정당과 행정부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대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불신과 냉소정신을 부추겼던 결과를 낳았다. 정치에 대한 냉소는 결국 정권의 이익으로 직결됨을 방송은 선거주체로서의 의의가 없는 무의의적인 자행한 모습이었다.

92.93년의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정권교체기로서 지배권력과 민주화세력이 공개된 연로를 통해 대결하는 마당이 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언론의 중립화, 탈정치화는 필수적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방송이 정권에 완전장악된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강화된 현형이다. 방송민주화세력과 방송노조의 분발이 더욱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식

(중앙대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과정)

◇UN가입과 통일정책의 허구성

비핵군축등 실질적 문제는 뒷전

UN안보리가 남북한 동시 가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다. 동서독은 유엔가입이후 사실상 통일을 포기했다. 동서독의 통일은 유엔가입의 결과 아니라 동구변혁의 결과인 것이다. 동구변혁이라는 우연한 요소가 통일의 조건을 만든 것이 유엔가입이 통일을 이끈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서독의 예를 들면서 유엔가입이 '분단의 국제적 합법화'라는 결과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유엔가입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국내정치는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유엔에 가입하면, 특히 남한정부는 유엔가입을 북방정책과 함께 6공화국의 최대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부각하면서 민족민주운동 진영을 탄

압하고 야당을 회유하여 권력재편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활용하리라고 보여진다.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된다.

유엔가입은 '남한정부에 의한, 남한정부가 부리는 평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 진영에게 반드시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유엔의 권능은 과거 '미국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상태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분열 해결하는 상대로 한걸 높이고 있다. 유엔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건이

의 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소련의 붕괴후 '상호의존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므로 유엔의 권능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민족의 이해를 위하여 유엔무대에서 협력과 단결을 강화한다면 유엔가입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유엔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엔의 역할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는 것은 금물이다. 유엔에서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강하므로 유엔이 미국의 패권실현을 위한 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가입은 결국 남한의 민족민

주운동 진영에서 앞으로 어떠한 투쟁을 벌이느냐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나 '정부간의 평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남한정부는 유엔가입이라는 외교적 환경변화에 수년전 교착된 내부의 냉전구조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모습을 은폐하기 위하여 정부는 '생태대기'정책을 취하면서 유엔가입을 자축할 것이다. 핵문제, 평화협정문제, 불가침선언문제, 군축문제 등 한반도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색내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공공의 선언정책'을 펼칠 것은 쉽게 예견된다. 온갖 생색을 다내면서 이를 권력재편과 92년 4대 선거에 활용하리라는 것은 볼을 보듯 변하다.

하지만 민족민주운동의 투쟁과제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불가침선언, 비핵지대, 평화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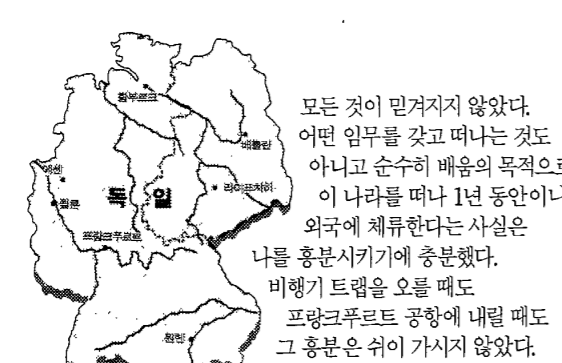
정, 군축, 전사지원국 지원협정 반대, 미군기지 철수 등으로 모아져야 한다. 유엔가입으로 변화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남한 정부의 '의사평화협정'의 관례를 드러내야 한다.

한편 유엔가입은 객관적으로 '냉전체제 이완'의 결과이자 '한반도에서 탈냉전의 적용'이므로 이와 동순을 이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노동기구 가입과 함께 노동법 개정운동은 통일으로 대 중운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유엔가입은 당면한 비핵군축 평화운동, 장기적으로는 단일국호 유엔가입의 파제를 안겨준 셈이다.

김창수

(평화연구소 연구원)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三星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어떤 임무를 갖고 떠나야 하는 것인지 순수히 배움의 목적으로 이 나라를 떠나 1년 동안이나 외국에 체류한다는 사실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릴 때도 그 흥분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 세계를 무대로 뛰는 비즈니스맨이 될 준비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사로이 보아 넘기지않는 나를 발견하면서 삼성인의 자격으로 이 낯선 땅을 밟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피터-인스티튜트 근처의 조그만 하숙방에서 나의 독일생활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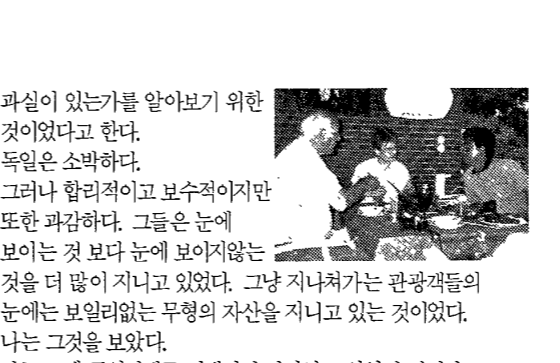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새로웠고 내 젊음은 그 모든 새로움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독일의 하늘은 회색이다. 그 회색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사색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독일인은 그 우울을 사색으로 발전시켰다. 피터가 그렇고 릴케가 그렇고 레마르크가 그렇다. 독일어로 그들의 시와 소설을 다시 읽었다. 어느새 나는 독일인이 된 기분으로 그들의 생활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몸에 배인 근면성이 있다.



벼룩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고시장에서 난 많이 쓰던 물건을 아무 거부감없이 사용하며 그런 거래를 통해 상인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근면성이 2차대전으로 인한 폐허의 독일을 경제기적의 나라로 일으킨 것이다. 또한 독일인들은 철저한 직업윤리를 갖고 있다. 직업이 갖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직업은 단지 자기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법과 철학의 나라다운 국민이었다.

한편은 자동차전자자술에 취한 보행자를 치었는데 그는 제발리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차에 치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은 그 사람의 알콜농도 검사를 통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독일은 소박하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보수적이지만 또한 과감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않는 것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냥 지나치는 관광객들의 눈에는 보일지않는 무형의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독일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은 이해하고 있는 만큼 독일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더욱이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배움의 목적으로 독일에 와 있는 나를 그들도 반쯤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몰라철학대인 시절 너무나 친절한 도움을 준 한 상원의원, 로렌트크 가도를 안내하던 마를렌스, 나를 독일인으로 착각하게 해준 하숙집 아줌마, 그들은 나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작은 독일인들이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독일에 주재원으로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독일행이 될 것이다. 벌써 마음은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듯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나를 그려본다. 당당한 비즈니스맨으로 독일땅을 밟고 있을 나를 -

삼성은 매년 인사 3년치의 신입사원 400명씩을 선발하여 지역전문가 양성하기 위해 1년간 세계 45개국에 독신평과검토 있으며 3년후인 94년에는 약 2,000여명의 지역전문가 양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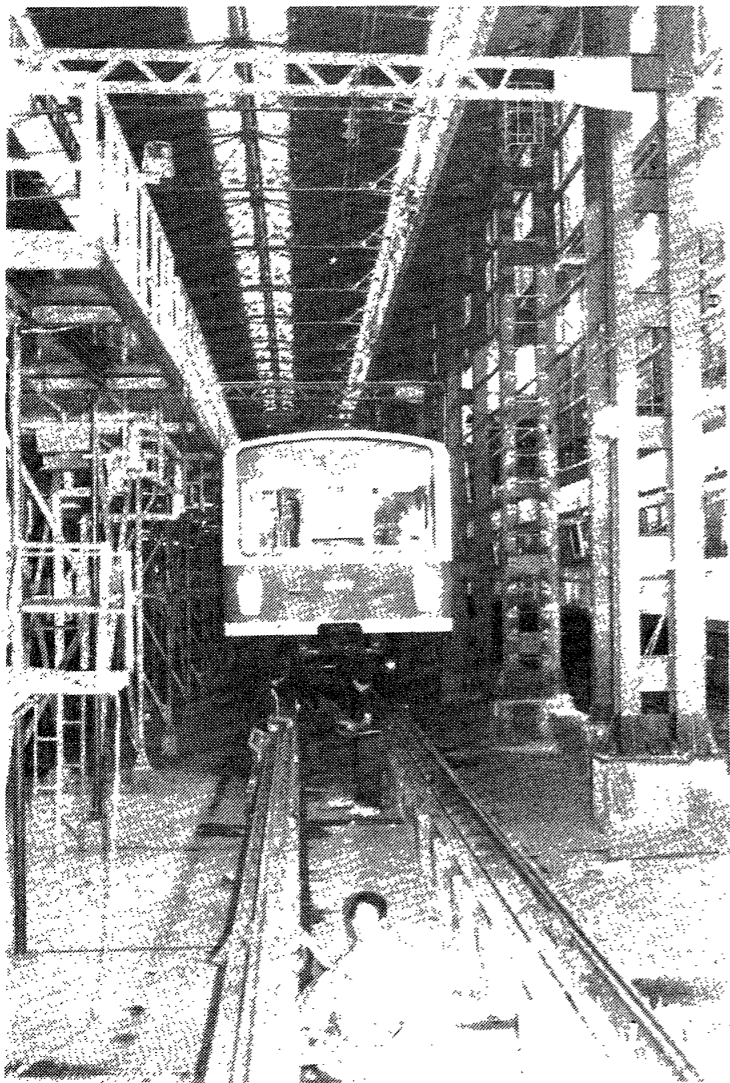
91년부터 인사 3년치의 신입사원중 10%를 선발하여 세계 45개국에 1년씩 파견하여 지역전문가 양성해가는 독신평과 지역전문가 양성제도는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아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제도입니다.

현지언어습득, 商 관습과 문화체득, 여행 및 현지인과의 사교 등의 큰 줄기외에는 일체의 요구사항이 없으며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의사와 계획에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三星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들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결국 사람의 국제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이 제도에 젊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전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다음에 내리실 역은 | 지하철 해방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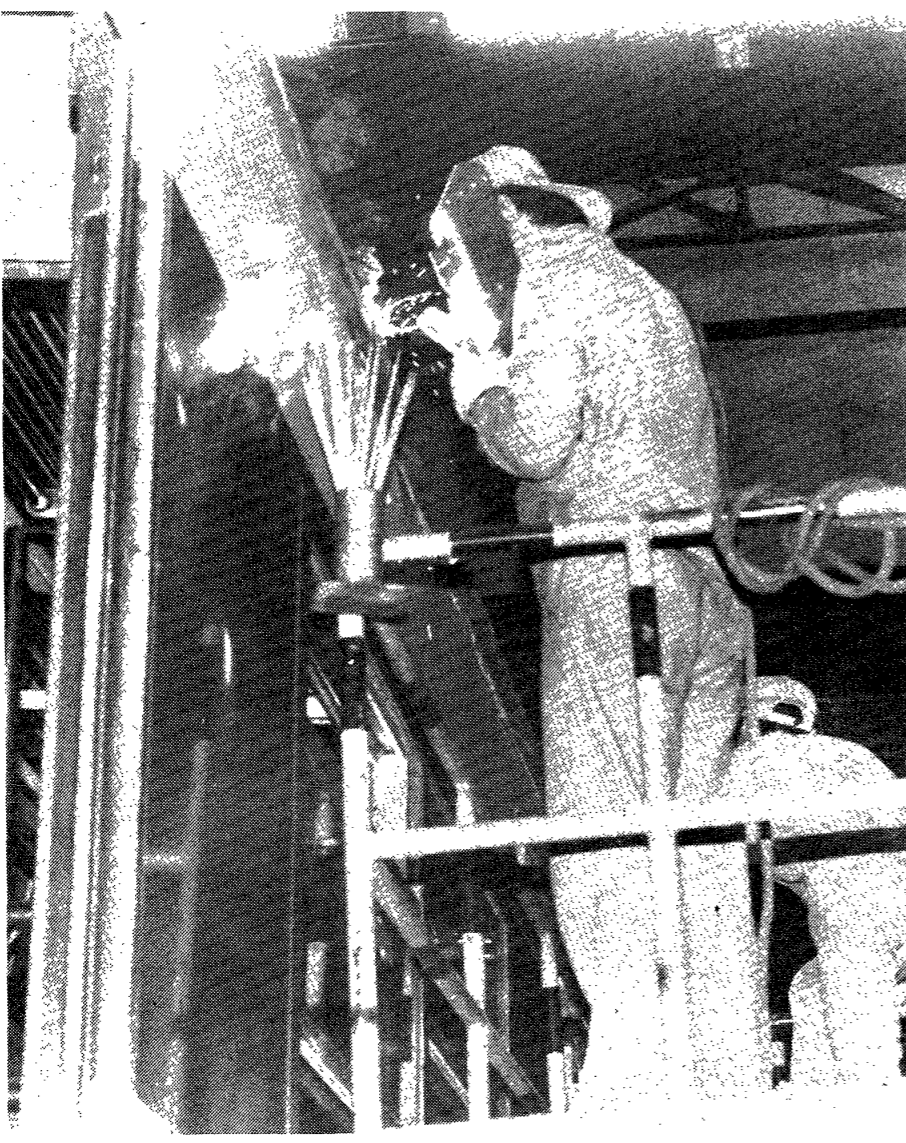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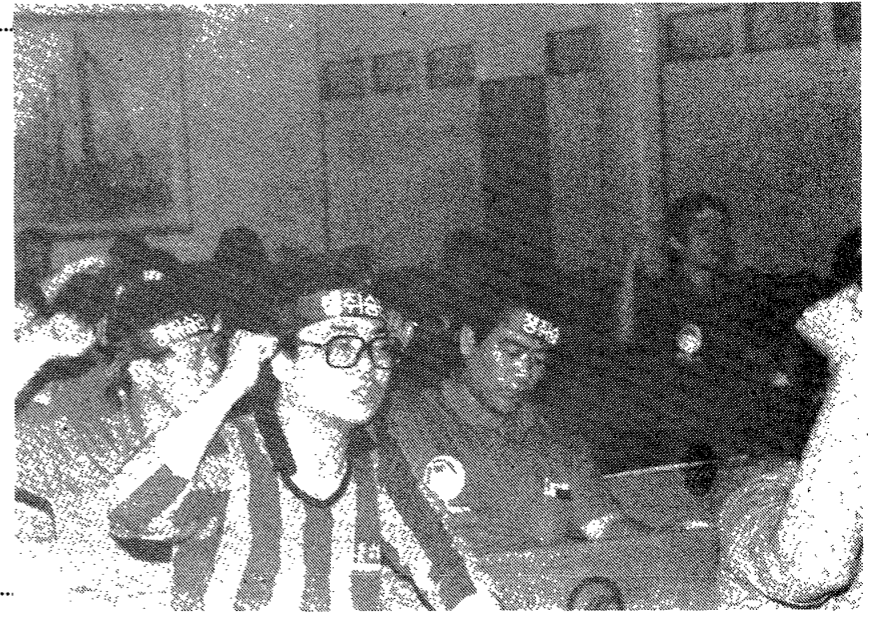


<사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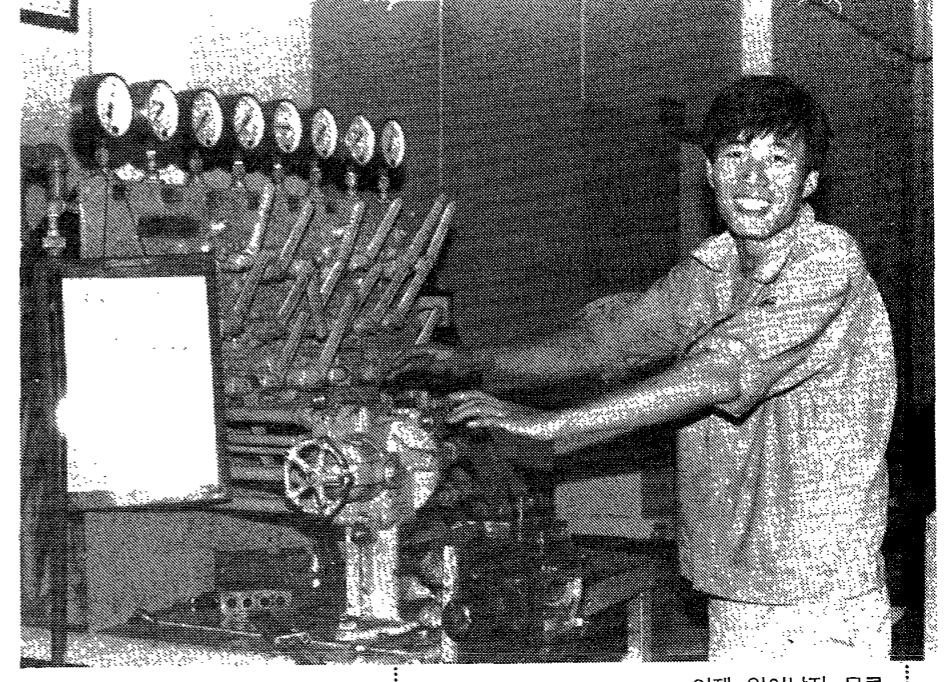
하루 평균 8백20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지하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으로 노동자로서의 그들의 삶은 많은 부분 가려워져 왔다.
우리의 가장 친숙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찾아 하루의 운행경로와 노조원들의 생활을 사진으로 담아 추위에 우리와 가장 가깝게 만나면서도 공무원(?) 같지만 한 느낌때문에 조금은 열개만 느껴졌던 이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정비를 받고 있는 해방열차
지하철 기지중 가장 거대한 군사기지 차량 점검장. 보통 지하철은 전 구간을 2회정도 운행 후 1번씩은 정비소에 들려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노동하는 삶은 곧 투쟁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공사조직내 총 32개 지회장 중 14개 지회장에 대해 공산측이 노조활동 등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으므로 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서 지난 13일부터 방배동 본사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총 32지회장은 지난 87년도부터 모두 노조활동을 해왔으며 이번에 공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14개 지회장은 그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노조원이다.



‘남한 최대의 지하조직’이라는 특이하면 서도 엄청난 수익어를 가지고 있는 서울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
전체 직원은 청경을 포함해 8천3백명이 며 이 중 노조원은 7천5백여명이라고 한다.
88년의 총파업 이후 계속적으로 원차계 단위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권익사업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지하철공사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하철 건설에 쓰였던 비용을 거의 대부분 지하철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비도 국고에서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아 자체내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으로 인해 노조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도 위에 열거한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야기하고 사망하며 교통문제와 지하철공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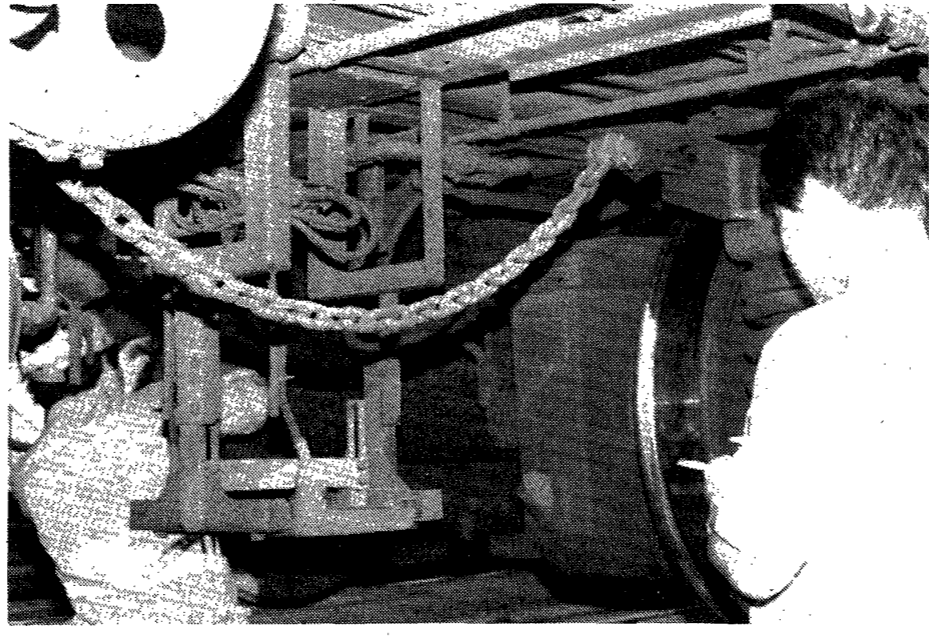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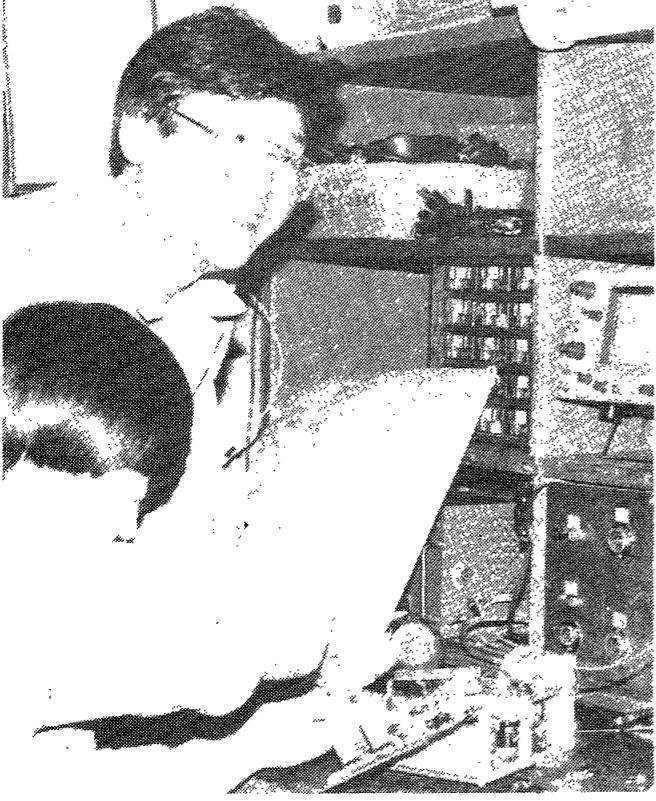
◀지금 지하철은 수술중
낡은 지하철 또는 보통 지하철은 2~3년마다 1번씩 통상 분해해서 보수공사를 한다. 지하철 수술공사가격인 이곳 차량공작일은 지하철공사 작업중 가장 힘든 일이다.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재동기를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점검하고 있다.

▲아저씨 물래 살짝
때로는 재미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무임승차를 하는 대학생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무임승차자는 전철 이용자수의 약10%에 달하고 있어 지하철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금의 저하에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노조측은 밝히고 있다.

◀우리도 신문에 나와요?
지하철 공사내에서도 잘 드러내 보이지 않는 작업장인 정밀기기 시험소.
지금도 이곳 지하철공사는 국가보안대상중 하나이다.

▼지하철은 평크가 안 나지만 안전점검은 꼭 하지요
차량 점검 작업중 하나인 바퀴회전상태 점검 작업.



학술기획 - 새로운 학문세계에 도전한다.

남북 문학통사 정리할 이룬 있어야

학문은 개척하는이에게... 한국문학연구를 집성한 한국문학통사

한국문학연구를 집성한 한국문학통사

82년 한국문학통사 1권을 발간한 뒤 88년 5권이 나오기까지 조교수의 문학연구는 일맥을 이루고있다.

한국문학통사는 크게, 구비문학, 한문학과를 포괄하는 총체성을 띠고 있으며 고전과 현대문학의 연계를



조동일 교수

간을 생각중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내용으로볼때 해방이후 남북한 문학을 통괄해야하는데 현재 남북 문학을 묶는 이룬이 서있지 않다.

또 앞서도 지적했듯 국문학의 성과들도 제3세계문학과 세계문학에 확대시키고 구체화시켜야 한다.

한국문학의 성과를 근거로 세계 문학의 보편성을 조명하는데 제3세계 문학은 매개 역할을 한다

구비문학, 한국문학, 세계문학으로 이어지는 국문학연구를 수신제 가치규명전하에 비유하는 조교수는 우리문학의 과제중의 하나로 세계 문학의 보편성 도출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수의 문학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조교수는 국문학의 토대를 불교문화에서 찾았을 때 우리 문학의 보편성, 불교문화연구에 본교가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국문학은 자칫 지역성과 특수성에 고립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제3세계문학과 세계문학으로 발전적 확대는 진정한 국문학 발전의 밑거름이다.

우리 대학인재는 주제적인 문학적성과 문학의 보편성을 도출하는데 주력해야하며 조교수처럼 단편적인 연구에서 오는 문학적 단절을 극복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의무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남철우기자)

수천년동안 펼쳐진 우리민족의 구체적 생활과 정서, 지향의 문학 속에 녹아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0여년동안 구비문학에서 제3세계문학에 이르기까지 국문학의 길을 걸어왔던 조동일교수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신천지에 발을 내딛는 불라움'으로 표현하면서 국문학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의무적인 학자적 자세를 늦추지 않는다.

국문학의 바탕은 구비문학

"국문학이 표면이라할때 구비문학은 내부적 토대"라고 말하는 조교수는 국문학에 발을 딛기전 동기로 '탈춤, 설화, 민요'로 대표되는 구비문학의 토대를 꼽았다.

고전과 현대문학의 연계를 근대 문학 형성에서 찾는데 한국문학 통사는 그 의의가 있다

우기를 보이며 우리문학의 바탕이 대표적 민중문화인 구비문학에 정력을 쏟는다.

또 민중적 창조물로서의 구비문학이 갖는 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문학의 이론, 철학과 문학의 관계를 조명하며 '한국문학사상사론', '한국소설의 이론'을 집필하여 구비문학연구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국문학연구시기를 크게3기로 나눈다는 조교수는 구비문학연구시절을 1기로 부른다. 이시기는 계몽대, 영남대 교단에 있을때 구비문학의 현황을 돌며 채우고 이론을 정리했다.

국문학 고립화 극복하는 세계문학으로의 확대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국문학연구사, 문학과 철학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최근에는 한국문화와 세계문학관계를 조명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문학연구를 근거로 동아시아문학으로 동아시아문학을 제3세계문학으로 여기기 다시 세계문학으로 확대시킴으로 국문학을 세계문학의 보편성속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이 정돈을 밝힌다.

제일모직

Advertisement for 'XX' clothing brand featuring a large graphic and text: "젊음은 유행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젊은 캐주얼 '작스'".

거품경제현상이 한탕주의-과소비 부추겨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화를 필요로 한다. 화폐(money)가 없었던 물물교환시대의 사람들은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방법으로 필요한 물건을 획득하였다.

화폐란 바로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교환매체 또는 지불수단인 것이다. 이처럼 화폐는 한 경제의 흐름을 결정짓기위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제의 총체적인 흐름과 총량적인 측면의 경제현상을 다루는 거시경제학은 화폐금융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필자는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하나의 예술과도 같은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거시경제학의 흐름에는 고전학과(classical)적인 조류와 케인즈학과(Keynesian)적인 조류가 있다.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정책을 옹호하는 케인즈학파의 경제이론은 일본 보기에 합리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 지기 쉬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정책은 자칫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따라 경제를 왜곡시킬 수도 있음을 필자는 여러 가지 사회경험상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도 일찍부터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화주의학파의 선두에 섰던 것이다.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필자는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하나의 예술과도 같은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나의 학문이야기



권오철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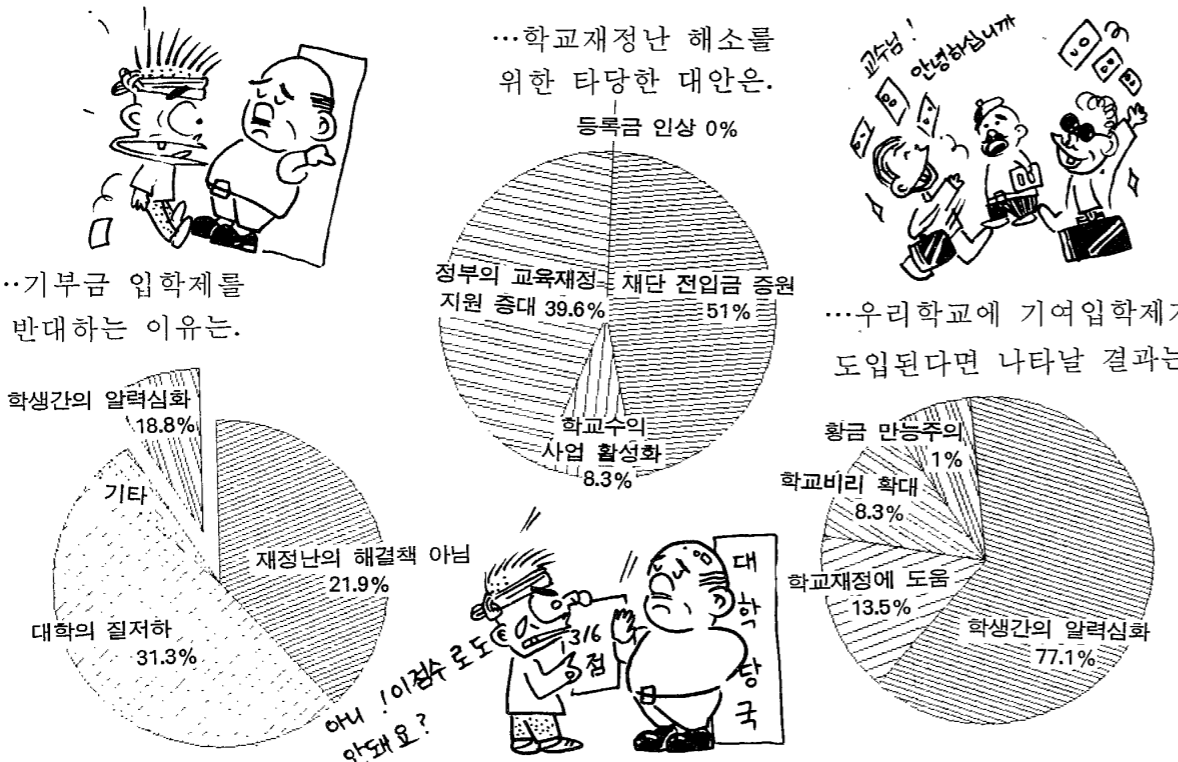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이런 생활속에서 체험한 학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수요를 조절하는 제랑

설문조사

그림으로 보는 '기부금 입학제'



“기부금 입학제”가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행될 단계까지 가 있다.

이에 우리 학우들은 기부금 입학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을 들어보았다.

총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6부를 회수, 분석한 결과 기부금 입학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14명(14.6%), 반대 73명(76%), 아직은 시기상조라 대답한 사람이 8명(8.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찬성한다면 그 이유로 △학교재정에 도움이 된다 △부정입학 근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입장으로는 △대학의 질 저하 △재정난의 해결책 아님 △학생간의 알력 심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부금 입학제를 제외한 학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는 △재단 전입금 증대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간의 알력심화 △학교비리 확대 △학생간의 알력심화 △학교비리 확대 △학생간의 알력심화 △학교비리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동업생대 참가

◇찬양편

중반으로 접어들어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열정을 계속하며 자정이 가까워지는 지금 우리는 찬양편을 출발, 단국대 찬양 캠퍼스로 발걸음을 옮긴다.

얼마를 지났을까? 저 멀리서 찬양대원 학생들이 햇살을 밝히 우리를 맞이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든지 언제나 백만 학생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었다.

음모를 뛰어넘은 천인투쟁 '적과의 동침'

통선대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따뜻한 친절들. 이것들 모두가 통일에 대한 열연이요, 조국 통일 쟁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

다음날 아침,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루를 힘차게 시작했다. 동지애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찬양연습에 출발했다.

도중에 거리 곳곳에서 3~4인이 1조가 되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불가침 선언 채택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가두 선전전을 벌이게 된다.

전일수업-산업체특별전형으로 야간자주화를

제4기 전야대협 출범식을 마치고

지난 13-14일 양일간 만해광장에서 제4기 전국 야간강좌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출범식이 성대히 치러졌다.

이제까지의 정체를 띠고 다시 새롭게 출범한 제4기 전야대협은 '야간교육자주화'라는 기치 아래 출범했다.

현재 남한사회에서 야간강좌는 정치적 재편기에 정치적 이용물로 수단화되어 왔으며(이 는 정권의 안정적 재편에 큰 도움을 주었다),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아래 파행적으로 흘러왔다.

그래서 현재 야간교육은 그 본래의미인 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상실된 상태

열린클터

본사 여론매체부는 동야의 모든 주제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글, 만화, 사진 등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소정의 고료도 지급합니다. 각 단대 모니터 요원(편집부장)을 통하여나 신문사로 직접 가져 오시면 됩니다.

영리추구 아닌 학생편의 위한 매점 필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학교 매점이 어찌 그렇게 매장할 수 있겠나?

정말 순수한 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는 학교식당이 불가상승이라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남을 1백원씩 인상을 해버리고 만다.

“동국가는 가서 라면이나 먹지” “라면 사들게, 따라 와라” “오늘 뭘먹을지 애매 맛있는 라면이다”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리던 학생들의 라면에 대한 의견은 점점 폭증하는 라면값에 따라 절절히 표명해져 갔다.

근무시간 이탈로 불편 겪어서야 토요일도 참고정간실 개방했으면

며칠전 선배의 심부름으로 중앙도서관 참고정간실 방문에 간 적이 있다. 오후4시30분쯤 급하게 뛰어가 자료를 찾았으나 복사를 하는 학생이 워낙 많아서 그냥 되돌아왔다.

이튿날 자료를 찾은후 복사를 부탁하니 애초 수업을 한시간만 할 수 있는 한시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가 오후4시30분, 아직 문을 닫으려던 30분이 남았는데... 급한 일이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더라.

실습실 부족 실습기자재 전무 자연과학관 신축 시급

은방골에 자연과학대학이 문을 연지 어느덧 다섯해가 되었다.

그러나 자연과학관 하나없는 우리 자연과학도들은 그동안 원료관, 전공관, 도서관등을 전전해 왔다. 그나마도 실습실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상태이며 공용실습실 운영여건의 부족, 거의 전무한 실습기자재 등의 상태에서 88년 학원자주회투쟁 당시 자연과학관 신축을 요구했으며 89년 12월5일 기획조정실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천재적 음악의 영상감동!

시대를 앞서 살아간 연인들의 열렬한 사랑!! 정열과 사랑, 미움과 질투, 절망과 동행이 스르르잡힌 인간들이 선과 악을 추구하러!!

1991년 최고의 모체르트의 '아이데우스'가 대박이었던 바수를 밟고 1991년에는 쇼팽의 '푸른노트'가 엔터테인먼트계 개성입니다. 세기의 음악계에 생동마차라고 하면 모체르트 '쇼팽'을 칭할수 있다. 이 두사람은 필자적인 30대에 타계하였다. 특히 쇼팽은 마지막 3년 쇼팽의 음악세계를 소개하는 등 가두 선전전을 벌이게 된다.

쇼팽의 푸른노트 LA NOTE BLEUE

가장 인디애나 출신의 감독 칸드레시노, 그리고 모리스 미르, 프랑수아 피제, 세기의 피아니스트 잔느 조레주니악

세네하이스 秋夕 특선프로

영도산영관 544-7171

The Korea Herald

日刊紙 新聞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10월 8일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욕심 많은 여성 없습니까

내년부터 비서자격시험 시행

다들 비서는 '회사의 꽃'으로 머무는 수 없습니다. 정보와 사회의 도래, 바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비서는 단순한 비서적인 종래의 업무를 넘어 점차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비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국내에서도 노동부 주관으로 내년 1월부터 비서자격시험이 시행됩니다.

비서직은 여성 특유의 감성과 능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능력과 교양, 센스를 겸비한 '만능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서학교 코코샤를 욕심 많은 당신과 함께 비서직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교육과목	비서실무론, 인간관계, 사무관리, 경영학, 사무OA실용, 영어, 일어, 속기, 교양(에이코프, 코디네이션, 예절 등)
교육과정	1일 2시간 주5일 (월~금) 수업, 기초부터 고급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사진	미국 Harvard 대학출신 등 고학력 수준의 전인 Native Speakers.
수업시간	7:00~8:45AM 10:00~12:00AM 5:00~7:00PM 6:00~8:00PM 7:00~9:00PM 8:00~10:00PM
수료비용	● 무역영어 과정 ● TOEFL 종합반, 러시아어 ● 한국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최후의 게임

1992년 대권쟁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한국정치의 가상사극

최후의 게임

고원정 가상정치소설 (전 3권)

DJ, YS, J.P 그리고 숨겨진 정치세력들이 벌이는 가상정치인 막후 공작과 권모술수 그리고 그 정치적 한계를 파헤친다. 2권 4,200원

1982년 D-7일 제2의 6.29 선언
1982년 D-6일 신민당 총선
1982년 D-5일 일베는 YS의 DJ
1982년 D-4일 북한 비사태 선포
1982년 D-3일 일산자 X의 출현
1982년 D-2일 DJ 퇴진
1982년 D-1일 5공 주체화 전면 부각
1982년 D-0일 여의도광장, 백만명중결

너스레비교

총서로써 비롯한 전국 대학서점 베스트셀러 선정!!

15권 15000원
2권 2000원
3권 2000원
4권 2000원
5권 2000원
6권 2000원

범조사

경주

자연과학관 착공

지방캠퍼스 과학교육의 요람되게 해야 학과 증설시 강의실 부족 여전할 듯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 기공식이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27일까지 5일간 옥야실등지에서 열린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 인건으로서 일하는 자로 해방된 삶을 사는 자주적인 여성, 민주적인 남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대동학교는 문과대학, 음악, 무용시간, 강연, 체육대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동학교의 입학금은 5천원이다.

이번에 신축되는 자연과학관은 총면적 2천3백여평에 지상5층 지하1층의 콘크리트 구조로 총공사비 50억원이 들어오는 93년 3월30일 완공하게 된다. 내부시설로는 실험실 24실, 강의실 13실, 연구실 42실로 자연과학대학에서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공사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명실공히 고급과학 인력을 배출하는 요람으로서 첨단 과학기자와 실용·실습기자를 구비해 지방캠퍼스 과학교육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체육관 뒷편에서 학생회관 뒷편으로 부지이전, 생화학관 신설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착공이 늦어졌다. 한편 이번에 설계된 자연과학관은 현재 자연과학대학의 학과에 기존한 것으로 93년 전까지는 자연계열 학과 신설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주캠퍼스 기공과학센터의 강화추진에서 생각해

볼때 물리학과등의 기초과학분야의 학과 신설이 불가피해 자연과학관 완공후에도 실험실 및 강의실 부족 사태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동학교

여성에 대한 관념탈피
경주캠퍼스 제7대 여학생회(회장=박정희·국사) 주최 자

주여성·민주남성 대동학교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옥야실등지에서 열린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 인건으로서 일하는 자로 해방된 삶을 사는 자주적인 여성, 민주적인 남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대동학교는 문과대학, 음악, 무용시간, 강연, 체육대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동학교의 입학금은 5천원이다.

한의대 '행림제'

체육대회·학술제 등
전국 한의대 학생체 육육대회는 '행림제'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간 경희대학교에서 열렸다.

본교 한의대생 1백50여명이 비롯한 전국 9개대 1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림제'는 △12일 개회식 및 전군식, 문화제 △13일 학술제, 초청 강연회, 체육대회, 문화제 △14일 체육대회 및 폐막식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본교 한의대 학생회는 '사관학교에 대한 연구'와 '도움김용축의 기원학소고등'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기공식에서 민병현 총장이 시삽을 하고 있다.

현대적 포교방법 일한

제3회 영남지역 대학생친분가경연대회 오는 28일 오후 1시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경주캠퍼스 불교학부(회장=최성락·경제2) 주최로 열린다.

대중선원 개원

23일부터 정각원서
경주캠퍼스 불교도 동아리인 석림회(회장=매물스님·불교2)

에서는 오는 23일부터 대중선원을 개원한다.

취업특강 실시

준비 및 전략 소개
하반기 채용정보 및 취업준비 전략 특강이 경주캠퍼스 학생처(처장=설영기·무역학) 주관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소강당에서 열린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고시반 장학금 지급 이기현군등 총22명에게

경주캠퍼스 고시반은 고시 장학금으로 이기현(회계4)군을 비롯한 12명에게 고시A장학금(수업료 전액면제), 황철성(경영3)군을 비롯한 10명에게 고시B장학금(수업료 반액면제)을 지급했다.

찬불가 경연대회

현대적 포교방법 일한
제3회 영남지역 대학생친분가경연대회 오는 28일 오후 1시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경주캠퍼스 불교학부(회장=최성락·경제2) 주최로 열린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문3), 김준일(한의학1)군에게 각각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총대위원회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10월말경의 각기구 선거에는 총대의원회

고 윤육준군등 4명 추모식

유가족·친구등 애도속에 진행
경주캠퍼스 고 윤육준, 김성우, 진현성, 이현중 학우 합동 추모식이 지난 12일 오후 1시 옥야실에서 유가족을 비롯 친구, 학생들의 애도속에 진행됐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경주총학 오늘 진군식 방중사업보고-2학기 사업제시

경주캠퍼스 제8대 총학생회(회장=오규석·한의학2) 2학기 진군식이 오늘(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옥야실에서 3부로 나눠 열린다.

총학생회의 방중사업보고와 2학기 사업방향 제시 및 학생회 홍보·강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진군식의 1부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옥야실에서 총학생회 산하 민중당 청년학생위원회(위원장=전준근·철학3) 발족식이 있게 된다.

2부는 2학기 진군식이 오후 1시부터 김늘이를 시작으로 열려 △각각대장 소개 △방중사업보고 △2학기 사업계획 발표 △입문대 조직진전 보고 △현시 기 불일운동에 대한 보고 △

30여명 법원앞서 기습시위

'노정권 타도' 주장
경주캠퍼스 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30여명이 지난 14일 오후 1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청문에서 최현철(미수3)군과 강순호(조경·87)군의 강제연행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주캠퍼스 후배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인규(일

대의원 등록 95명에 그쳐

2학기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경주캠퍼스 제8대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4) 대의원 추가등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돼 총 1백27명중 95명이 등록했다.

추석 귀향버스 운행

경주서 서울까지
경주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용범·경제4)에서는 복잡한 추석 귀향에 대비해 2대의 버스를 예약,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한다.

출산동창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본교 출산동창회(회장=류기평·농학4)는 지난 10일 경

총학, 진군식 갖고 반미투쟁 결의

학원탄압-내각제 저지등 대응책 제시

민주정부수립과 자주통일 승리를 위한 1만 동학인 2학기 진군식이 제23대 총학생회 주최로 지난 12일 오후 1시 도서관에서 7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학기 사업보고와 2학기 반미구국투쟁 선포식으로 나뉘어 열렸다.

총학생회 문화부장 박성식(사회4)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진군식에서 총학생회장 경우식(철학4)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상실한 채 민족의 생존권 보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민족해방에 대한 항쟁 청년학도가 일치단결하여 투쟁 선봉에 나서 조국통일을 기필코 우리대에 완수하자"고 역설했다.

1학기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91년도 총학생회의 총과표인

각단위 토론과 분인토의의 활성화가 부족해 목적의식적인 대중사업이 미약하게 추진된 상반면 사업의 오류를 평가했다. 또 각 학생들의 주인의식 결여 및 단위학생회 간부와 공유된 내용의 결핍을 들었다.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간부교양학교 개설을 통해 이후 92-3년 권역개편기를 맞아 꼭 승리를 안아줄 것을 결의했다.

이외 각단위 모범 과소모임, 학생회에 민주통치상을 시상하고 총학생회 자치기구인 학복위의 우정장학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2학기 반미구국투쟁 선포식에서는 소련사태 및 남북한 UN정기회담에 대해 청년학도는 현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 공세를 극복해 나가면서 현시

기 신인·민주 야당의 야권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학생·민족민주운동세력이 연대투쟁을 벌일것을 결의했다.

또 한 동학이 나아가길로 삼았다. 비핵군축을 통한 조국통일 투쟁에 전력할 것 △학원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자행되어지는 학원탄압에 강고히 대응해 나갈 것 △수입 개방압박과 내각제 개헌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으로 크게 3가지 기조를 내세웠다.

특히 이번 진군식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불가침선언 채택을 위한 서명운동 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이어 도서관 집회를 끝낸후 교내 선전전을 벌인 학생들은 퇴계로 중구청 부분으로 진출하려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상태를 이었다. 이과정에서 선전전에

참가한 몇몇학생은 도로 한가운데 누우면서까지 적극적인 대시인 가두 선전전을 가졌다.

통산 감사 마무리 학술부사업부재 지적

지난 11일 총학 총무부 감사를 마지막으로 총학 1학기 통산감사가 총감사를 남기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총학 감사특위 심철신(사회4) 총대 부의장이 작성한 이번 1학기 통산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학 상반기 총평에서 △소모적인 행사집행 △공약행 대한 구체적 대안 및 공약집행 주체 부재 등이 지적됐다. 또 집행부 평가에서는 학술부 사업내용 전부와 자체적 요소를 비롯, 각 부서의 지도내용 부재와 집행부 주체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DID 전화 개통 지연 과학생회까지 설치 어려울듯

관계과는 방학중 교내 전화회선 설치공사를 및 전차선 전화기 교체공사를 마치고 당초 오는 30일 개통을 계획했으나 울지전화국내 DID전화회선 설치업체의 공개입찰 지연으로 전화국-학교간의 전화회선설치가 늦어짐으로써 개통일자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DID방식에 의한 직통전화시스템은 10월말 개통될 것으로 보이나, 과학생회까지의 전화회선은 교내 전화회선 설치공사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계과는 개통이후 교외통화 통계를 위해 행정기구, 교수연구실, 단대학생회 등 체계적부를 검토중이나 단대학생회 교외통화에 대해 "전화통화로 및 부분별만 교외통화를 고려할 때 교외통화하기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경상대외장 권한대행 유용근 선출

경상대 대학원외장 최인환(회계3)은 공석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경상대 대학원회를 통해 유용(무역2)군이 대학원외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비핵서명본부 발족

사범대 서명토대로 입법 요구

사범대학생회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불가침선언 채택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사업대본부' (본부장 전계수·역교 2)를 지난 11일 오후 5시 본교 단대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식 발족했다.

이런 서명운동본부는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9일까지 1차 서명 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UN총회가 열리는 10월 중순까지는 2차 서명운동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지속적인 서명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서명운동본부에서는 이번 서명운동결과를 토대로 1백56회 정기국회를 통해 한반도 내의 비핵지대입법화를 요구하고, 이의 무산시 현국회의 반통일적 성격을 폭로할 방침인데 본부측은 최소한 비핵군축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인식의 폭을 넓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학복위 장학금 지급

53명에게 1천60만원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동우·국문4)는 지난 12일 열린 총학진군식에서 최성식(불교2)군에게 우정장학금증서를 대표로 지급한 것을 비롯해 오는 10월 11일까지 총 53명에게 장학금을 학복위실에서 지급한다.

이번 장학금수여에서는 타당 학습수혜자, 지난학기 우정장학금수혜자를 제외시켰고 법과대는 1개학과 1개과대 구성의 특수성으로 2인에게, 예술대는 연영과의 배려로 미술학과 2인에게 지급하는 등 53명에게 20만원씩 1천6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받는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문1) △윤옥일(사학3) △윤수현(철학2) △황현정(수학1) △송성룡(물리3) △김석현(화학) △전영선(통계3) △연재용(법학3) △박영수(법학1) △김순경(경의1) △김정태(행정1) △박찬식(경영1) △박현정(사회2) △김우식(경제1) △강운영(역사4) △김민석(경영3) △김영일(회계2) △최진식(정보관리2) △장영배(농학1) △김학균(인학2) △홍영미(농생) △배원(농경4) △안길범(전자3) △이성주(전선3) △윤영민(전기) △김태광(토목3) △이기식(건축4) △류수호(식공) △김창용(산공3) △김현태(국공4) △윤승석(역교2) △간재희(교육) △이종민(지교2) △이영명(수공) △유문경(가공1) △문해숙(체교3) △강태홍(미술2) △이기식(미술2)

고추 2만여근 판매

'농민-학생한마당' 열고 일정 마쳐

'91농민사랑, 농산물 제값받기'의 목적으로 총학생회 연대사업부와 농과대학 학생회 및 총학생회농민회 공동주최로 실시한 고추추진판매 판매가 지난 17일까지 9일간의 판매행사를 마쳤다.

지난 9일부터 실시된 이번 고추, 참기름 판매 행사는 교사, 비디오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기획, 고추판매의 의의를 홍보하는 선전행사등으로 진행돼 오늘(18일) 오후 5시 '농민, 학생 한마당'을 끝으로 모든 행사일정을 마친다.

고추판매가격은 평균 10근당 5만5천원, 3백60ml 참기름은 1병당 8천원으로 판매되었다. 농과대학생회는 지난 17일까지의 고추판매량을 약 2만근, 참기름 2백50병을 판매했으며 조장정 집계하고 이번 총판매

액은 1억원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만근에 비해 감소한 양이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내대학 총학생회차원에서 고추판매가 활성화돼 지난해 보다 많은 양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국관식당 이용 증가

직영이후 문제점 계속 보완

학교적용의 동국관학생식당이 기존의 업자임대식당보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동국관학생식당은 하루 평균 1천7백여명이 이용함으로써 업자임대식 1천5백여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후생복지계는 잠정 집계했다.

반면 다량관 학생식당은 최대 수용인원이 2천5백여명에도 불구하고 한때 2천8백여명까지 육박했으나, 동국관학생식당이 개입되면서부터 점차

최대수용수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김종복 후생복지계장은 "이제는 학교식당적용의 경험 많음으로 설비와 인력문제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식기과 체부터 시작해서 점차 탁·결상 교재와 LPG 저장소 설치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청년대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지구장=정용경)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본교 중강당에서 청년불자 3백여명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91 서울지구 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불타의 지혜로, 청년의 열정'으로 통일정토 세계상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불교청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불교혁신과 자주화 △지역청년회간의 유대 및 단결도모 △불교도 청년전체의 사명관식을 높여주는 취지로 열렸다.

불교청년대회에 참가한 불교청년회(이하 학복위)에 대한 탄압이 예상되는 가운데 탄압대응의 한방병으로 학복위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런 합의내용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라면가격을 6백원으로 인상했던 것을 5백원으로 다시 환원하고 지금까지의 라면면 '맛보면'의 재고량이 떨어지는 대로 '신라면'으로 바꾼다는 것등이다.

경영정보인 학술제

경영정보(MIS)인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한

'제3회 경영정보인 학술제 및 이를 겸한 학회'는 지난 14, 15일 양일간 본교를 비롯한 전국 12개 경영정보계 학과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학에서 열렸다.

통산감사 결과로 본 학복위 문제점

사업공개 대중성 확보시급

학원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 대한 탄압이 예상되는 가운데 탄압대응의 한방병으로 학복위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런 합의내용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라면가격을 6백원으로 인상했던 것을 5백원으로 다시 환원하고 지금까지의 라면면 '맛보면'의 재고량이 떨어지는 대로 '신라면'으로 바꾼다는 것등이다.

이런 합의내용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라면가격을 6백원으로 인상했던 것을 5백원으로 다시 환원하고 지금까지의 라면면 '맛보면'의 재고량이 떨어지는 대로 '신라면'으로 바꾼다는 것등이다.

통상활동문화운동 전개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학복위가 이같은 내부 진통을 겪는 것은 1학기 다양한 학생회 사업을 집행하면서 비례해진 업무내용을 관리하는 회계관리등 내부부재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복위 사업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면 △사업의 기획·의결·집행 과정을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외곽구조 문제 △학생식당, 다량관 2층 매점운영의 운영세칙 부재 △회계장부 기록 등 내부통제 기능 및 체계적 재무관리의 제도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학복위위원장 박동우(국문 4)군은 "학복위 회계제도의 문제나 내부통제를 위한 운영세칙은 고민중에 있다. 이번 학복위 문제가 지난해에도 고민했던 만큼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대 중앙 감사특위는 학복위 8월말 예·결산 자료를 토대로 예산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9월 말 학복위 1학기 통산감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복위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당국의 학복위탄압이 예상되며 예산감사 일정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복위감사를 둘러싸고 학복위-총대 감사특위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단위 학복위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복위사업 전체, 대중적 복지사업 내용 마련, 공개적 사업집행, 각종 운영세칙 마련을 통한 체계적 재무·회계관리 실시로 일반학생이 뿌리박은 학복위 사업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이병민 기자)

패션피(?)가 더합니다.

○...요즘 사법부의 저울은 패션피(?)의 정도에 따라 엄청난 수치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연유인즉, 강경대군 지사 사건으로 구속됐던 전경에게 징역3년등을 구형했던 사법부가 6-3외대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에게는 7년에서 5년을 구형하고, 이 구형에는 폭력죄와 패션피가 함께 적용됐다고. 이에 한 학우 "러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잘못 해석한 처사"라며 맹비난.

꿈꾸는 한국상(?)

○...머지않아 이땅에서는 애국심을 가지면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유인즉 최근 호화소비재 등 수입이 급증해 국민경제가 땅속에 치달는 이때, 미국축이 양달에 판매촉진을 방해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처벌할것을 우리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민

과소비 누가 역행하는데

○...매년 명절때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물가와는 달리 잠잠한 것이 있어 화제.
6공들이 최고의 물건인상을 올릴 것이고 있는 요즘, 지적, 1명을 무기징역 시킨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대자보 문화가 이미 익숙한 캠퍼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학칙을 적용하다보면 작은 것일지라도 타격을 입을 것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한다.

정의를 여신상도 패션피(?)엔 유구무언이로소이다

간학원의 소비억제 캠페인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이에 본회전문대자 "애국심을 가지면 구속되고 친미파란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미국이 꿈꾸는 한국상(?)이 아니라"고

난분 임무기간에 노동자 임급인상을 한자리로 억제하는 데 성공, 을 추석을 맞아 보너스 지급이 불가인상을 따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
국경감사하면서 도시락 먹는 의원들을 보며 한 시인 "도시락만 먹는다고 과소비

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먹으며 저력을 고충증 이해해 주십시오"라 하소연.
대자로 사전승인(?)

○...대자보를 쓸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라는 약법(?)을 만들어 학생회를 탄압하던 전산원측이 전산원 학생회가 지난 9일 원장의 눈에 거슬리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학생회 간부 2명을 제적, 1명을 무기징역 시킨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대자보 문화가 이미 익숙한 캠퍼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학칙을 적용하다보면 작은 것일지라도 타격을 입을 것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한다.

“형이 네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고생이야 객지에 나와 있는 형이 더하죠.
이제 우리 항공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라요 하던데 언제쯤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대우는 이미 고유모델 항공기 생산을 위한 기본 설계능력부터 항공기술의 최대관건인 첨단 복합소재 개발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을 갖춰놓고 있지.
게다가 최근에는 위성통신 분야에서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 요청을 받을 정도란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안에 항공기는 물론 한국최초의 인공통신위성이 발사되는 것을 보게 될거야!”

“형, 흔하디 흔하고 현장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대학시절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지. 문제는 그것을 실제에 얼마만큼 창조적으로 응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대학시절 이론적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지.”
“알았어요, 형. 남은 대학생활 열심히 노력해서 몇몇 지대한 신기술 창조에 주역이 되고야 말겠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자기개발에 힘쓰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중공업 최우철 (우주항공 연구소 항공기 소재팀) 사원과 공학도의 동생 최성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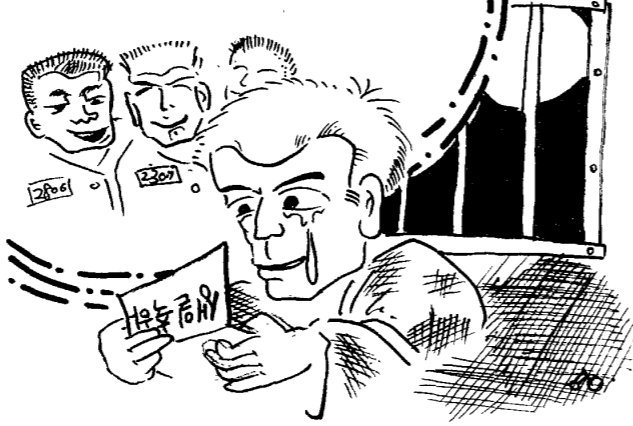
대우가 있습니다.

졸필입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며 목포 교도소에서 단식투쟁하시는 윤남진동지이하 동약의 여러 정치범 동지에게 이 글을 올립니다.

강 웅 원

동지간의 애정은 차디찬 쇠창살도 녹여

옥 중 수기



자민동 원회형이다. 자민동 형들은 언제나 짓웃었다. 때론 애인들 문제로 애수짓은 고민을 늘어 놓기도 하고 갑작이형은 재판준비 위해 통방할 때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때론 진한 음담패설도 놓치지 않았다. 오늘 원회형은 여된 입김을 푹푹 뿜으며 바깥에서 열심히 푸장하는 대척위에 대한 말씀에 열중하고 또 노한 시간을 불들어내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치는 할나에 운동 담당의 또각거리는 발자욱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운동 시간이다. 오렌지를 열로 자른듯한 모양의 운동장은 그나마 '비결'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강추위 속에서도 40여분 구보를 하고나면 여지없이 땀방울이 맺히곤 했다. 느긋한 웃음을 지으며 운동장안은 비아냥판다. "운동씨 갑시다" 몇 발자욱 못가서 짓누르는 분노와 기분이 타쳐왔다. 흰색에 실려 면피가 뒹뒹은 바로 삼민사건의 이명학 동지였기 때문이다. "명학아!" 간수의 당황함을 배 풀린채 달려갔다. 8월27일 교도관의 구두발에

것이겨 허파가 파열되어 사경을 헤맸던 저 동지의 생생한 목소리가 하도 그리워 손가락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였다. "아이 거 세월 얘기 좀 합시다

다. 동지들의 정성과 신심이 담긴 문귀로 얼룩진 박동지의 생일카드가 어스름한 땅거미가 질 즈음 정역보따리에 실려 팔랑거리면서 아랫층으로 내려갔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상 진행에 수고 강○○였습니다" 저녁방송이 종료되고 다시금 정치범 동지들의 진지한 고민의 자리가 시작되었다. 사동사동마다 국가보안법의 첩계를 의치는 절규와 함성은 감옥전선의 녹슬은 해방구를 절절히 선포하기 때문이다. 민중의 소리방송 구조부쟁이 끝날 즈음 "박세환 동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지!" 박수소리가 잠시 끝나고 격한 박동지의 떨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갑사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생일을 맞아 어머님 손이나 한 번 잡아 보려고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좌절되어 내심 안타까웠는데 동지들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두말이 필요 없겠지요, 열심히 푸장 합시다. 제가 노래로써 동지 여러분과 5사동 동계사자 여러분께 화답 하였습니다"

차차! 차! 차! 차!... 인타내서박가의 곡절곡절은 스산한 겨울밤을 조각조각 썰어내고 있었다. <반미구국전선>사건 관련자

다. 동지들의 정성과 신심이 담긴 문귀로 얼룩진 박동지의 생일카드가 어스름한 땅거미가 질 즈음 정역보따리에 실려 팔랑거리면서 아랫층으로 내려갔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상 진행에 수고 강○○였습니다" 저녁방송이 종료되고 다시금 정치범 동지들의 진지한 고민의 자리가 시작되었다. 사동사동마다 국가보안법의 첩계를 의치는 절규와 함성은 감옥전선의 녹슬은 해방구를 절절히 선포하기 때문이다. 민중의 소리방송 구조부쟁이 끝날 즈음 "박세환 동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지!" 박수소리가 잠시 끝나고 격한 박동지의 떨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 동지들의 정성과 신심이 담긴 문귀로 얼룩진 박동지의 생일카드가 어스름한 땅거미가 질 즈음 정역보따리에 실려 팔랑거리면서 아랫층으로 내려갔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상 진행에 수고 강○○였습니다" 저녁방송이 종료되고 다시금 정치범 동지들의 진지한 고민의 자리가 시작되었다. 사동사동마다 국가보안법의 첩계를 의치는 절규와 함성은 감옥전선의 녹슬은 해방구를 절절히 선포하기 때문이다. 민중의 소리방송 구조부쟁이 끝날 즈음 "박세환 동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지!" 박수소리가 잠시 끝나고 격한 박동지의 떨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농민과 소비자의 다리역할 뿌듯"

고추직거래를 마치며



우리 농촌은 유통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농산물이 헐값으로 매매되고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농민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의 '고추직거래사업'은 두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농협에서의 농민들과의 만남이 고추사업으로 다시 이어져 농학연대를 좀더 확고히 할 수 있다. 둘째, 농민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셋째, 팔린 고추를 팔고 배달해 드려준 농민들은 당시에 자식같은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냥 돌려 보내지 못하고 시원한 유포수리도 한잔 사주기도 하였다. "수고스럽지만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부탁 말씀이다.

피곤하지만 보람있는 하루생활을 마치고 평가시간이 돌아오면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오를수록 잘못을 서슴없이 반성하는 자세에서 우리 학생들의 농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새삼 느끼

◇고추직거래 사업은 농민에게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고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서야 훌륭한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다. 팔린 고추를 팔고 배달해 드려준 농민들은 당시에 자식같은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냥 돌려 보내지 못하고 시원한 유포수리도 한잔 사주기도 하였다. "수고스럽지만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부탁 말씀이다. 피곤하지만 보람있는 하루생활을 마치고 평가시간이 돌아오면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오를수록 잘못을 서슴없이 반성하는 자세에서 우리 학생들의 농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새삼 느끼

송편, 토란탕, 버섯요리 등 가을냄새 물씬



오늘날 추석의 의미는 옛 그대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옛의 미를 많이 지니고 있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여겨진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세시풍속과 함께 추석 음식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으나 아직은 옛부터 내려오는 고유명절음식들을 준비하여 조상께 차례(茶禮)를 지내고 있다. 추석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쌀떡만든 '송편'은 온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빚는데,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 옛 말이 말하듯 그 모양이 예쁘고 만드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그 고리 지방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달랐다. 송편속은 청대콩·계피말·참깨가 풀이나 설방을 넣어 만들었으며 절때 송이를 깔면 서로 엉킬 염려도 없고 한편으로는 술의 향미와 문양이 서려서 정서와 과학성을 함께 지닌 자랑찬 한 음식이다. 다음으로는 토란탕을 들수 있는데 그 고리 가을의 풍미를 더해주는 송이버섯으로 송이버, 송이산적, 송이전골, 송이전골의 버섯요리와 함께 햇버섯·도라지·당근등에 갖은 양념

을 즐기며 볶아 포엮기에 꿰어 만든 화양적과 버섯·도라지·파고 기름을 얹어 지며 케서서 밀가루 달걀에 튀겨 기름에 지져 만드는 누룽지는 추석상을 더욱 화려하게 하는 음식이다. 옛날에는 화에 방아리를 부화시켜 맑은 키우 추석무렵 햇밤에 삶아 올려서 한강 맛이 있을때 햇밤·표고버섯을 넣어 만든 탐럼, 닭산적, 닭누룽지등이 더욱 제맛을 내는 추석절식이였다. 이외에 배에 통후추를 박아 만든 율로로 배숙과 햇밤으로 밤초·율란, 햇대추로 조란등을 만들어 절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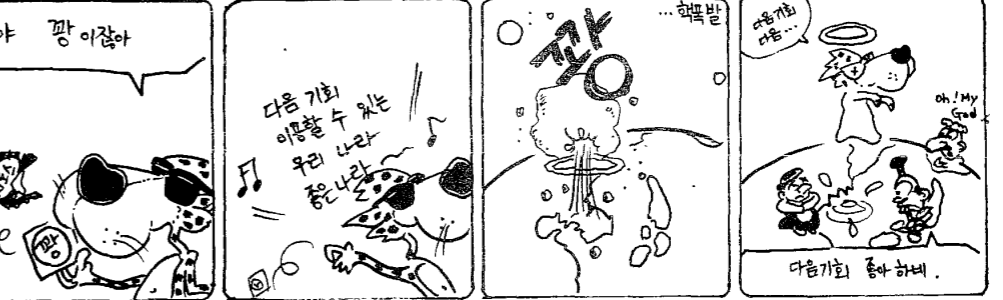
들긴다. 우리의 조상들은 계절에 따라 이 땅에서 자란 곡식과 채소·과일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 강토를 사랑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왔다. 우리도 다시 한번 추석의 의미와 추석음식의 맛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명절인 한가위를 마음으로 맞이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노정미 (사범대 가정교육과 강사)

민속문화 얼마나 아십니까

한가위의 음식

우리나라는 옛부터 농업국가로 절후에 따라 많은 명절이 있어 이날에는 특별한 음식들을 차려먹는 풍속이 있었다. 특히 추석날에는 햇곡식과 과일을 이용하여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온 가족들이 모여 조상님께 먼저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 상례였다.



한가위

▲흔히 가을을 역사의 계절이라 부른다. 어머니와 같은 품성으로 아무런 사심없이 구불구불 흘러가다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완곡하게 돌아가며 결국은 그것을 넘고야 마는 강. 넘실거리는 푸근한 강의 품은 고요하고 힘이 있으며, 격정의 바다와는 달리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역사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무릎앞에 부끄럼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어깨걸고 강이 되어 흘러왔다. 그러나 우리가 강이듯이 우리들 가슴속에는 건너야 할 많은 강물들이 흐르고 있다. 순간순간 우리를 밀쳐버리게 만드는 소시민적 근성의 '이기'의 강부터 '허무'의 강까지, 좀 더 깊고 맑은 가슴을 위해 건너야 하는 많은 지류들이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앞을 막아하고 있는 것이다. 세력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이 강을 허우적거리다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 아예 건너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다.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된다. 가족의 원초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진솔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 품성을 알아야 한다. 모든것을 담을 수 있고 그것들이 썩어 부패되지 않을, 부단히 흐르는 강. 이 강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얼마나 넉넉한가. 우리모두 이 좋은 계절 가을에는 적어도 하나의 강은 건널 수 있도록 하자.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저 강을 건너기 위해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자. (榮)

21세기 건설문화를 이끄는 유망 크리에이션

용기있는 도전만이 새로운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구정신으로 건축, 미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다민치-도목기사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한 피어리-불국사를 설계, 건축한 건취적인 우리 선조 김대성-

무한한 가능성의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그들의 업적이 오늘을 이루는 든든한 바탕이 되었듯이 극동건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창조·도전·건취정신으로 근 반세기동안 국내의 건설문화의 어재와 오늘을 이끌어 왔으며, 풍요로운 21세기를 창조하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크게 키워주는 극동건설과 함께 더 큰 미래로 패기있게 도전하십시오.

'92 대졸 신입사원모집

21세기 건설문화를 창조하는 극동건설과 함께 더 큰 미래로 도전하십시오.

모집방법	●추천채용 : '91년 10월
모집부문	1. 인문계 : 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2. 이공계 :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환경공학, 전산학
응시자격	1. 모집부문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92년 2월 졸업예정자 2.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모집인원	100명 (예정)
전형방법	●구술시험 - 면접 - 인 - 적성검사 ※구술시험 : 전공, 영어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당사 소장양식) 2.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3.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4. 추천서 (소장양식, 해당자에 한함)
기타	1. 추천응시자는 전학년 성적 B 학점 이상인자로서 추천의뢰 학과 한함 2. 자격·면허소지자 및 대학원 출신자 우대 3. 지원서 마감 : 1991년 9월 30일 4. 제출처 : 극동건설(주) 인사부

*당 그룹은 각사 개별 공개 채용임.
*문의처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내 극동건설(주)인사부 TEL: 273-1141 交211-213

極東建設株式會社